

## 이주로서의 식민과 지역의 발견

— 최인훈의 「두만강」과 뒤늦게 도착한 식민지 유년의 초상

장 문 석\*

### [초 록]

최인훈의 「두만강」(1970)은 소설가 자신의 유년시절 경험을 토대로, 1943-1944년 아시아태평양전쟁 아래 H읍의 풍속을 재현하였다. 하지만 그 재현은 투명하거나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아니었으며, 유년시절 기억과 민족의 공적 기억의 충돌과 그로 인한 억압 아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 결과 「두만강」의 서술자는 식민지에 대한 두 가지 이질적인 목소리를 가졌으며, 「프롤로그」를 통해 그 두 목소리를 통합하였다. 「두만강」의 서술자는 억압과 수탈이라는 식민지에 대한 전형적인 재현으로부터 벗어나서, ‘식민’을 ‘이주’로서 이해하고 피식민자 조선인과 식민자 일본인이 갈등 속에서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H읍을 형상화

---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두만강」, 민족, 황국신민세대, 유년시절, 식민지, 이주, ‘동물적 친근감’, 식민자 2세, 피식민자 2세, 민중, 역사, 동아시아 소농사회, 환경, 지역, 아시아 *Dumangang*, Nation, Japanese Empire People’s Generation, Childhood, Colony, Immigration, ‘Animalistic Affinity’, a Second-Generation Colonizer, a Second-Generation Colonized, People, History, East-Asian Peasant Society, Environment, Region, Asia

였다. 또한 서술자는 구체적인 생활 공간으로서 지역을 공유하는 피식민자와 식민자의 관계를 ‘동물적 친근감’이라고 명명하였다. 최인훈의 유년기 식민지 경험에 근거한 (피)식민자 2세의 형상은 ‘동물적 친근감’을 지역에 근거한 친밀성으로 전화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서사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두만강」이 재현한 「지역」은 「민중」의 주체성, 사회적 질서를 구성하는 역사의 중층성, 그리고 환경이라는 조건을 발전하는 토대가 된다. 「두만강」은 H읍이라는 특정한 지역을 배경으로 한 「민중」의 구체적인 삶을 포착하였는데, 이러한 관심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70-1972)과 『태풍』(1973)을 통해 심화된다.

## 1. 서 — 쓰이지 못한 에필로그, 「두만강」의 뒤늦은 도착

이 글은 1970년 7월 『월간중앙』에 뒤늦게 발표된 최인훈의 ‘첫 작품’인 「두만강」에 주목하여, 「지역」으로서 식민지를 재현하는 것의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최인훈의 「두만강」에 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지 못하였다. 이는 최인훈의 다른 소설과 비교할 때, 「두만강」의 소설적 완성도가 높지 못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두만강」은 최인훈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 회령을 상기시키는 H읍을 배경으로 1943-1944년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H읍 사람들의 삶과 욕망, 그리고 풍속으로 묘사한 소설이다. 하지만 최인훈은 몇몇 지면을 통해, 「두만강」이 1952년 자신이 피난지 부산에서 창작을 시도한 첫 소설이지만, 그 자신이 창작적 훈련의 미비함으로 다양한 글감과 주제를 통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700매의 분량에 이르고도 그것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sup>1)</sup> 이후 그는 「두만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소설인 「GREY구락부 전말기」(『자유문학』, 1959.10.)를 통해 문단에 등단하였으며 중장편 『광장』(『새벽』, 1960.11. /

1) 최인훈(1989),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길에 관한 명상』, 청하, pp. 31-34.

단행본 정향사, 1961), 장편 『회색의 의자』(1963~1964), 장편 『서유기』(1966~1967 / 단행본 을유문화사, 1971), 연작 「크리스마스캐럴」(1963~1966), 연작 「총독의 소리」 1~3(1967~1968) 등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연작의 형식으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두 편(『월간중앙』, 1970.2. / 『창작과비평』, 1970.3.)을 발표한 이후에야, 뒤늦게 그의 첫 소설 「두만강」을 발표하였다.

1970년 7월호 『월간중앙』에 「두만강」을 발표하면서, 최인훈은 「작가의辯」을 덧붙인다. 소설 「두만강」에는 본문 뿐 아니라 「프롤로그」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만강」은 「작가의辯」, 「프롤로그」, 본문이라는 이질적인 층위의 텍스트들로 구성된다. 「작가의辯」은 뒤늦은 발표의 경위에 대한 최인훈의 진술이며, 「프롤로그」는 소설의 배경인 H읍에 관한 묘사와 서사의 의미를 서술자가 해설하고 있다. 최인훈은 「작가의辯」을 통하여 「두만강」의 본문이 “쓰여진 분량은 좀더 길지만, 그대로의 완결성을 주기 위해 뒷부분을 잘라 버렸”다고 밝혔다.<sup>2)</sup> 하지만 실제 발표된 「두만강」의 서사는 완결성을 갖추었기 보다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한경선의 고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는 순간 서사가 단절된다. 최인훈의 진술은 ‘그런대로 완결성을 갖’춘 것으로 읽히기 보다는 ‘뒤쪽을 잘라 버렸’기에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로 읽혔고, 선행 연구에서는 「두만강」을 유년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하였으나 실패한 소설, 미완의 첫 소설 정도로 이해하였다. 1952년 부산에서 “피난지 학교 생활의 어려움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한 회고에 다름 아니었을 터”라는 평가가 대표적이다.<sup>3)</sup> 또한 소설과 함께 게재된 「작가의辯」을 통해 최인훈이 밝힌 것처럼 「두만강」은 중심인물인 20대를 전후한 여성 현경선(玄京仙)과 ‘소학교’<sup>4)</sup>

2) 최인훈(1970), 「작가의辯」, 『월간중앙』, 1970.7, p. 395.

3) 김윤식(2009), 「토착화의 문학과 망명화의 문학 — 이호철과 최인훈 1」, 『문학의 문학』, 2009. 겨울, p. 270.

4) 제국 일본의 칙령 제148호 ‘국민학교령’(1941.3.1.)에 의해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은

3학년 남학생 한동철(韓東哲)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연애와 우정을 서사화한다. 하지만 소설의 초반에는 그러한 서사가 진행되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애초의 구도는 사라”지며 「두만강」은 서사의 “비대칭, 불균형”을 면치 못했다는 점 또한 서사의 완성도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sup>5)</sup> 최인훈의 다른 소설과 달리, 작품론 형식의 접근이 거의 진행되지 못한 것은 서사의 완성도에 대한 염려가 두루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두만강」에 대한 접근을 주저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곤란함은, 최인훈의 다른 소설들과의 양식적 내용적 거리이다.<sup>6)</sup> 등단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 최인훈은 『광장』, 『회색의 의자』 등으로 대표되듯 지식인 남성 주체를 주동인물에 초점화하여 그의 교양과정을 통해 서사를 진행하는 소설을 창작하였다.<sup>7)</sup> 하지만 1960년대 중후반 그는 「총독의 소리」로 대표되듯, ‘전통적인’ 서사의 양식을 탈구축한 미학적 실험을 통해 당대의 후식민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재현하였다. 그런데 1970년 최인훈은 다시금 인물과 사건이 제시되는 소설인 「두만강」을 발표했으며, 이후에는 인물의 내면과 의식, 실천에 주목한 『태풍』을 이어서 발표한다. 이 점에서 그의 「두만강」 창작은 최인훈의 문학적 실천에서 일종의 ‘회귀’ 혹은 변곡

---

‘소학교’에서 ‘국민학교’로 변경된다. 「두만강」의 서술자는 ‘국민학교’라는 명칭도 일부 사용하지만, 대부분 ‘소학교’라고 지칭하였다. 이 글은 ‘소학교’라는 서술자의 지칭을 따르되 따옴표를 표시하였다.

- 5) 손정수(2009), 「환상으로 존재하는 삶」(해설), 『최인훈 전집 7 — 하늘의 다리 / 두만강』, 문학과지성사, p. 349.
- 6) 「두만강」이 발표되었던 1970년대 초반, 김윤식은 최인훈의 다른 소설들과의 차이로 인해 “사람들은 약간 당황했을 지도 모른다.”라고 당대의 반응을 기록하였다. 김윤식(1974a), 「어떤 한국적 요나의 체험 — 최인훈론」, 『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p. 367.
- 7) 최인훈의 『광장』과 『회색의 의자』를 교양의 서사로 이해한 연구는 권보드래(1997), 「최인훈의 『회색인』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11, 민족문학사학회, pp. 231-242; 복도훈(2014), 「1960년대 한국 교양소설 연구 — 4·19 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pp. 39-85.

의 지점으로 이해되었다.<sup>8)</sup> 최인훈 스스로도 1970년 「두만강」을 발표하면서 “專門 批評家나 까다로운 독자를 제외한다면 나의 작품 가운데서는 「廣場」과 더불어 제일 보편적인 전달이 가능한 소설입니다.”라고 자부하였다.<sup>9)</sup> 그러한 변화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두만강」의 서사는 높이 평가 받지 못했다. 이는 서사의 완성도에 대한 의문에 더해서, 이 소설의 인물과 배경이 주는 곤혹감 때문이다.

「GREY구락부 전말기」, 『광장』, 『회색의 의자』, 『서유기』 등 최인훈의 1960년대 초중반 소설들은 (A) 남성 지식인 주체가 서사의 주동인물이 되어, (B) 식민지와 냉전 아래 한국의 역사적 조건으로 인한 곤혹과 그 극복의 문제를 서사화하였다.<sup>10)</sup> 하지만 「두만강」은 (a) ‘소학교’ 남학생과 20살을 전후한 여성을 초점화자로 설정하고 그들 주변 ‘민중’들의 삶을 형상화하며, (b) H읍은 어느 정도 자족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고, 유년의 초점화자는 그 삶에 결핍을 그다지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이 소설에서 (c) H읍은 ‘동족공간’이 아니라,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이 잡거(雜居)하는 지역으로 형상화되며, (d) 그 지역의 체험

- 
- 8) 천이두는 일찍이 「두만강」의 문학적 특질이 “오히려 「그레이俱樂部 顛末記」나 『廣長』 등 그(최인훈-인용자)의 초기 작품들과 계열을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문장부터가 그의 다른 초기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평명한 사실주의적 묘사가 주축을 이루고, 작중 현실 역시 일상적 차원 위에 설정되어져 있다.”고 평하였다. 천이두(1978), 「추억과 현실의 환상」(해설), 『최인훈 전집 7 — 하늘의 다리 / 두만강』, 문학과지성사, pp. 318-319.
- 9) 최인훈(1970), 「작가의辯」, p. 395. 이 문장은 「작가의辯」의 마지막 문장인데, 이후 『최인훈 전집』에 「작가의 말」로 제목이 바뀌어 수록되면서는 삭제되었다.
- 10) 손유경(2011),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난 만주의 ‘항일’ 로맨티시즘」, 『만주연구』 12, 만주학회; 김진규(2014), 「선을 못 넘는 ‘자발적 미수자’와 선을 넘는 ‘임의의 인물’ — 최인훈의 「광장」(1961)과 훗타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1951)」, 『상허학보』 40, 상허학회; 이경림(2014), 「서사의 창조에 의한 자기 정위(定位)의 원칙 — 최인훈의 『회색인』론」, 『한국현대문학연구』 42, 한국현대문학학회; 장문석(2015b), 「후기식민지라는 물음 — 최인훈의 『회색의 의자』에 관한 몇 개의 주석」, 『한국학연구』 3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적인 풍속이 구체적으로 재현된다. 이는 최인훈의 다른 소설들이 (C) 동족공동체로서 한국 사회를 전제하고 있으며, (D) 풍속의 재현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점과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에 더해, 「두만강」이 형상화하는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들이 섞여 살아가는 H읍의 일상은 지극히 평화롭고 아늑하다”는 사실은,<sup>11)</sup> 「두만강」 해석에 더욱 더 큰 곤란을 가져온다. 주요 인물인 ‘소학교’ 남학생 한동철은 조선인 친구들의 괴롭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오히려 일본인 여학생 친구인 유다끼 마리코에게 친근감을 느낀다. ‘소학교’의 교원인 현경선은 자신의 ‘연애’가 지지부진한 것에 곤란을 느낀다. 그들의 주변에는 ‘대일협력’의 태도를 취한 조선인 중년들의 모습, 창씨개명을 하고 자연스럽게 일본식 생활을 하는 조선인들의 일상이 제시된다. 최인훈 문학의 특징인 관념지향성이 잘 어울리는 남성 지식인의 교양의 서사로부터 거리를 둔, 「두만강」의 서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야할 지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충분한 대답을 갖추지 못하였다. 「두만강」이 “우리가 살았던 한 치욕적인 시대의 풍속도”<sup>12)</sup>라는 초기의 평가는 이후 연구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두만강」의 인물들이 식민지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는 주체적인 자아를 형성하지 못했음을 비판하거나,<sup>13)</sup> 「두만강」을 식민지 조선인의 일상에 일본의 생활양식과 풍속이 투입하고, 교육과 신문 등의 장치를 통해 제국 일본의 전쟁 선전과 식민 이데올로기가 식민지 주체에게 내면화하는 양상을 포착한 소설로 독해하였다.<sup>14)</sup> 선행 연구는 대부분 「두만강」의 서사를 미달

11) 류동규(2016), 「유년기의 식민지 기억과 그 재현 — 하근찬과 최인훈의 경우」, 『식민지의 기억과 서사』, 박이정, p. 270.

12) 천이두(1978), p. 320.

13) 이평전(1996),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pp. 55-56.

14) 배지연(2016),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일제강점기의 기억과 풍속 재현의 글쓰기 — 『두만강』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71, 우리말글학회, p. 380.

로 평가하거나, 그 서사의 의미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이 「두만강」의 특징적인 국면들을 포착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만강」이 가진 문제성은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다는 것이 이 글의 판단이다. 이 글은 선행 연구의 성과를 검토한 위에서, 미완으로 남겨진 「두만강」이 1970년 뒤늦게 발표되었다는 점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최인훈은 몇 차례 스스로 「두만강」의 미완에 대해 설명을 시도한 바 있지만, 최초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여러가지 사정이 겹쳐서 집필이 중단되고, 그후에 다른 작품을 가지고 文壇의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정」 가운데서 순전히 文學的인 그리고 가장 주요하기도 한 事情만을 말한다면 이 小說을 써가면서 애초에 예상하지못한 局面들이 새롭게 나에게 質問해왔기 때문입니다. 著述을 하는 사람이면 으레 겪는 일입니다. 그것들은 어렵고 갈피를 잡을수 없이 형클어진 것들입니다.<sup>15)</sup>

그는 처음 「두만강」을 구상할 때는 ‘예측하지 못한 국면’들을 소설의 집필 중 마주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국면들이 ‘자신’에게 ‘질문’한다는 표현이다. 즉 최인훈은 서사 자체가 글쓰기 주체의 곤혹을 초래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1989년에 남긴 진술 역시 이러한 문제를 환기한다. 그는 구상 단계에서 서사에서 제외했던 요소들이 집필 과정에서 출몰했음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끝까지 배제할 만한 신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sup>16)</sup> 「두만강」의 미완은 서사 창작 층위의 문제 뿐 아니라, 주체의 윤리적 층위에 대한 질문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두만강」을 논의하면서 이와 같은

15) 최인훈(1970), 「작가의 辯」, p. 394. 이하 밑줄은 인용자의 것.

16) 최인훈(1989), p. 34.

작가의 윤리적 층위의 곤혹과 그것이 소설의 서사 구성에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 글은 2장에서 작가로서 최인훈의 세대적 경험을 탐색하여, 1930년대 중후반 ‘황국신민세대’에게 식민지를 재현하는 것의 의미와 그 곤혹에 대하여 살펴본다. 3장에서는 이러한 주체의 윤리적 곤란이 「두만강」의 서술자의 불일치한 목소리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겠다. 4장에서는 그러한 불일치와 곤혹을 넘어서 최인훈이 「두만강」을 통해 재현한 H읍이라는 지역의 형상과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관계의 의미를 탐색하며, 5장에서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민중, 역사,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됨을 살펴보고자 한다. 6장에서는 「두만강」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고 논의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며 글을 갈무리하고자 한다.

## 2. 유년기에 겹쳐진 식민지의 형상 — 어느 ‘황국신민세대’ 문학자의 경우

「두만강」의 배경은 최인훈의 고향인 H읍, 곧 회령이다. 최인훈은 회령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그곳에서 보내고 중학교에 진학한 후, 원산으로 이동하였으며 원산고등중학 2학년생이었던 1950년 12월, 가족과 함께 LST를 타고 월남하였다.<sup>17)</sup> 1960년대 중반 최인훈은 『회색의 의자』와 『서유기』를 통해, 남성 지식인 주동인물을 W시, 곧 그가 중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원산으로 회귀하도록 하였다.<sup>18)</sup> 원산은 1960년대 중반 최인훈의 소설을 구성하는 주요한 공간으로, “유형지이자 피난지 의식으로 가

17) 최인훈(1994), 『회두』 1, 민음사, p. 52; 김윤식(2009), pp. 244-248 및 267-270.

18) 최근 최인훈의 문학을 월남문학으로 이해한 연구들에서는 『회색의 의자』와 『서유기』에 주목하면서, W시, 곧 원산을 그 이동의 초점으로 삼았다. 방민호(2016), 서세림(2015), 김진규(2017) 등 참조.



득 차 있”는 곳이었다.<sup>19)</sup> 그러나 소년 시절을 지낸 원산과 달리 그의 유년시절 고향인 회령은 최인훈 소설에 쉽게 등장하지 못하였다.

회령을 배경으로 한 「두만강」은 먼저 창작이 시도되었으나 마무리 되지 못하였고, 결국 1970년을 전후하여서 발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최인훈의 원산 경험은 중등학교 시기의 체험과 연관되며 해방 후 냉전 및 열전의 경험이었던 것에 반해, 그의 회령 경험은 유년기의 체험과 연관되며 식민지와 전시체제하 일상의 경험이었던다는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다. 최근의 한 연구는 「두만강」이 식민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1970년대에 발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 소설에 등장하는 “동철, 경선, 그 밖의 많은 인물들이 성장해서 1960~70년대 한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함으로써, 해방 이후의 식민주의적 무의식을 비판했다고 평가하였다.<sup>20)</sup> 또 다른 연구는 「두만강」이 발표된 시기는 “식민지 경험을 망각하려는 경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그것을 기억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간적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한 시점이었으면서도, 과거 식민 지배자와의 극적인 관계 변화를 받아들일 만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시점”이었다고 평가하였다.<sup>21)</sup>

이 글은 선행 연구의 성과에 기반하여, 최인훈에게 ‘식민지’와 그 경험이란 무엇이었는지에 관해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만강」을 발표한 후에 최인훈이 연재했던 「갈대의 사계」의 한 장면은 흥미로운 시사를 제공한다.<sup>22)</sup> 1972년 1월 초순을 배경으로 한 일화이다.

19) 김윤식(2009), p. 270.

20) 배지연(2016), pp. 406-407.

21) 류동규(2016), p. 255.

22) 최인훈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느슨한 연작 3편과 「갈대의 사계」라는 제목으로 『월간 중앙』(1971.8.-1972.7.)에 1년간 연재된 소설은 후일, 후일 소설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로 편집된다. 아울러 「갈대의 사계」의 각 연재분은 발표 시점으로부터 2달 전의 현실을 소설로 포착하여, 12개월 동안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였다. 장문석(2017), 「통일을 기다리는 나날들 — 7·4 남북공동

조금 걸어가자니 길목에 일본 대사관이 나선다. 김홍철씨가 걸음을 멈추고 대사관 지붕을 올려다 본다. 지붕꼭대기에 일본기가 꽂혀 있다.

「아노 하타오 우테」

구보씨는 깜짝 놀랐다. 난데 없이 들려온 그 소리였다. 저 기를 쓰아라. 하는 일본 말이었다. 구보씨가 소학생이던 일본점령시대에 구보씨는 그런 제목의 영화를 보았던 것이다. 「보어 전쟁」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다. [...] 쓰러져가면서 희생자들이 부르짖는 소리. 「아노 하타오 우테」 그들이 저주와 미움으로 쓰라고 웨친 기는 영국기였다. 진격해 오는 영국군 대열속에 나부끼는 아노 하타오 우테. 그런데 일본기를 보고 있는 구보씨의 귀에 그 먼 소년시절에 본 영화 속의 부르짖음이 함성처럼 들려온 것이다.

「아노 하타오 우테」

또 한 번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훨씬 뚜렷했다.

「그런 영화가 있었지?」

그것은 김홍철 씨 목소리였다. 구보씨는 비로소 소리의 입자를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생각나는군」 [...]

「사실 처음에 이상했지?」

「뭐가?」

「한일조약 후 해방 후 처음 일본기를 봤을 때 말이야」

「사실이야」

「일본시대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런 기분을?」

「응」 [...]

「그러나 저 기를 보니 섬찍하더군」

「그래 그래. 저 기가 저대론데 우리 사이는 청산된걸로 한다?」

「미진한 것 같지?」<sup>23)</sup>

---

성명 직전의 최인훈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통일과평화』 9(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장 참조.

구보씨는 최인훈을, 소설가 김홍철은 최인훈의 동향 선배이자 원산고 등중학 2년 선배인 이호철을 가리킨다. 김홍철은 일본대사관 위 히노마루[日の丸]를 발견한 후, 문득 “あの旗を撃て.”라는 일본어 문장을 발성한다. 흥미로운 점은 최인훈이 처음 이 일본어 문장을 들었을 때, 그가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점이다. 또한 그 놀람은 이어서, 식민지를 경험했던 유년 시절의 잠재화한 기억을 솟아오르도록 한다. 이어서 두 사람은 한일기본조약으로 일본과 한국의 국교가 수립된 이후 일장기를 다시 보았을 때의 곤혹을 언급하며, 또한 자신들이 그 시기를 경험했음을, 곧 자신의 주체형성이 유년 시절의 식민지 경험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한다. 이호철과 최인훈은 각각 1932년과 1936년생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식민지의 ‘국민학교’를 다닌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들은 군사화된 사회와 학교 안에서 남성화된 일본어로 교육을 받았으며, 해방 이후에는 역으로 일본어를 통해 세계에 관한 지식을 형성하고 세계문학을 독서하였다.<sup>24)</sup>

하지만 그들에게 일본은 지식의 투명한 매개(medium)는 아니었으며,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었다. 이들 보다 앞선 세대 역시 식민지를 경험하였으며, 해방 후에도 필요한 경우 일본어 독서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1930년대 중반 세대에게 식민지와 전시체제하의 일상은 유년 시절의 경험이었다. 유년 시절의 서정적인 체험적 기

23) 최인훈(1972), 「갈대의 사계」 8, 『월간중앙』, 1972.3, pp. 424-425.

24) 해방 이후에도 일본어로 세계에 관한 지식을 구성해야 했던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반공주의적 검열로 인해, 도서 출판에 사상적, 이념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정현은 1950~1960년대를 ‘고서점의 시대’로 회상하였다. 식민지 시기에 유통된 일본어 책이 남아 있었으며, 보다 넓은 범위의 ‘사상과 출판’이 가능한 일본어 책이 ‘곧바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어떤 책을 읽고자 마음 먹고 고서점을 뒤지면 “어딘가에 꼭 있”었다고 회고하였으며, 이 점에서 “아무리 혹독한 권력도 우리들의 정신세계의 문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라고 평하였다. 남정현·한수영(2012), 「환멸의 역사를 넘어서」, 『실천문학』, 2012.가을, pp. 97-98. 해방 전후 원산에서 이호철의 일본어 독서체험에 관해서는 방민호(2015), 「이호철 선생을 만나다」, 『문학의오늘』 13(2015.봄.), pp. 68-69.

역과 전쟁과 수탈이라는 ‘민족’의 공적 기억은 충돌하게 된다. 이 점은 최인훈과 같은 1936년생 비평가 김윤식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慶南 金海郡 進永이라는[sic] 한 가난 한 농민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는 것은 日本巡査의 칼의 위협과 식량 공출에 전진공급하던 부모님들 및 동리 사람들의 초조한 얼굴입니다. 國民學校에 입학한 것은 1943년으로, 진주만 공격 2년 후이며 카이로 宣言이 발표된 해에 해당됩니다. 十里가 넘는 邑內 國民學校에서 『아까이도리 고도리』, 『온시노 다바꼬』, 『지지요 아나다와 쓰요갓다』, 『요가렌노 우다』 등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불렀습니다. 혼자 먼 산을 넘는 통학길을 매일매일 걸으면서 하늘과 소나무와 산새 틈에 뜻도 모르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외로움을 달래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는 리듬이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는 이 무렵 가끔 지원병입대 장정의 환송회가 눈물 속에 있었고, 아버지의 징용 문제가 거론되는 불안 속에 우리는 이따금 관솔 따기로 수업 대신 산을 해매었습니다. 동리에서도 할당된 양을 채우기 위해 관솔 기름을 직접 짰던 것입니다. 그리고, 늦그릇 공출이 잇따르고…… 이러한 일들은 내 幼年時節의 뜻모르는 抒情性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른이 되어 1년동안 滯日했을 때 <靖國神社>에 가끔 가서 느낀 것은 의외에도 이 나의 幼年時節의 뜻모르는 抒情性의 아픔이었습니다.<sup>25)</sup>

25) 김윤식(1974b), 「어느 일본인 벼에게」,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일지사, pp. 1-2. 편지 형식의 이 글의 수신인은 다나카 아키라(田中明)이다. 그는 1926년생으로 유년시절을 식민지 조선에서 보냈던 일본의 저널리스트였다. 한일기본조약 이후인 1970년대 초반 다나카는 한국고전문학을 연구하기 위해 현해탄을 건너 도한(渡韓)하였다. 그는 구 제국의 주체와 후식민지 주체 사이에는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소통불가능성의 심연을 개인의 심정적 ‘결단’이나 ‘도약’으로 메우는 것을 비판하였다. 대신 그는 ‘반일’의 ‘실질’을 명징하게 응시하고, ‘반일’의 ‘질감’을 섬세히 판별할 것을 요청하였다. 김윤식 또한 다나카의 소통불가능성에 공명하면서 『한일문학의 관련양상』을 편집하였다. 장문석(2015a), 「상흔과 극복 — 1970년 김윤식의 도일과 비평」, 『민족문학사연구』 59, 민족문학사학회, pp. 17-18.

1974년 김윤식은 미국·영국·중국이 일본에 대한 전후(戰後) 처리 방침을 언급한 카이로 선언이 발표된 1943년 8세의 나이로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일본가요 <赤い鳥小鳥>, <恩賜の煙草> 등과 일본군가 <父よ、あなたは強かった>, <予科練の歌> 등을 뜻 모른 채 따라 부르며 스스로를 위안했음을 밝힌다. 그는 무척 곤혹스러운 어조로 그때를 회고하는데, 당시 어른들은 징병, 징용, 공출 등 전시체제의 압력과 폭력 앞에 노출된 상태였으나, 유년이었던 그 자신은 ‘뜻 모르는 서정성’ 속에 놓여 있었다. 후일 성장한 김윤식은 일본의 야스쿠니 진자(靖國神社)에 가서야 그 서정성을 아픔으로 느낀다. 그는 자신을 두고 “의식의 차원에서는 반일감정이 역사의식으로서 엄존”하더라도,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황국신민>의 世代는 짙은 鄉愁에 젖어 있음도 사실”을 고백하였다.<sup>26)</sup>

김윤식은 최인훈을 다룬 한 편의 비평에서 최인훈과 그 자신을 두고, “우리 세대의 극히 짧은 식민지 시대에 받은 교육”이 갖는 의미를 특기하였다.<sup>27)</sup> 이들에게 식민지 교육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이 개인의 의식에 적지 않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죄의식은 정신적 외상을 형성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일본 노래나 군가를 따라부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유년기의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즐거워했던 것이 사후적으로 정신적 외상이 되는 것이다.<sup>28)</sup> 최인훈과 김윤식이 사석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불러야할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일본 군가가 튀어나”온 경험을 공유하였다는 사실에서도 볼 수 있듯,<sup>29)</sup> 그들

26) ‘황국신민’이라는 용어는 1937년부터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을 역임한 시오하라 토키사부로(塩原時三郎)의 신조어로, ‘자기를 버리고 덴노(天皇)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인간’을 의미한다. 宮田節子·金英達·梁泰昊(1992), 『創氏改名』, 明石書店, pp. 20-21.

27) 김윤식(1980), 「<우리> 세대의 작가 최인훈 — 어떤 세대의 자화상」(해설), 『최인훈 전집 9 — 총독의 소리』, 문학과지성사, p. 533.

28) 윤대석(2012), 『식민지 문학을 읽다』, 소명출판, p. 272.

29) 김윤식(1996), 『최인훈론 — 유죄 판결과 결백 증명의 내력』, 『작가와와의 대화』, 문

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유년시절을 경험한 같은 ‘황국신민세대’였다. 월남 이후 1970년대까지 최인훈은 회령에서의 유년시절 경험을 배경과 소재로 한 소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들의 유년시절 식민지 경험은 억압되어 있었다. 최인훈은 사적 경험에 대한 증언을 많이 남기지 않았으나,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중반 그는 회령시절 자신의 삶을 보다 온전한 형태로 남겼다.

마침내 항복하고야 말 전쟁을 치르느리고 일본 점령자들은 생활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조선말 신문은 벌써 없어지고, 조선말 교과서도 없어지고, 곳곳에 일본 귀신을 모시는 일본 성황당이 서고 명망 있는 조선 지도자들도 <대세>가 조선인이 일본 사람 되기를 조선인의 살길이라고 타이르는 사상통제 아래에서, 모든 억압과 고통은 세월이 이런 세월인가 보다고 체념시켰다. [...] 아버지가 집안을 일으켜 시골읍의 조출한 성공자가 된 것은 일본 점령의 마지막 10년 시기였다. 아버지한테는 그 시기가 인생의 황금기였고 그의 가족들은 거기서 나오는 여유에 대한 자각 없는 수혜자였다. 지금 질서가 자연스럽다고 믿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계층에 우리 가족은 속해 있었다. 나의 주변에는 이 질서에 대해 무서운 심판의 말을 들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질서가 무너지자 우리는 H를 떠나야 했다.<sup>30)</sup>

탈냉전기에 발표된 회령에 관한 최인훈의 회고는, 그의 기억이 억압과 고통 아래 체념하는 ‘조선인’과 시골읍의 조출한 성공자가 되어 일본 점령 마지막 10년간 황금기를 경험한 자신의 ‘가족’의 대비라는 형식으로 구조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에게 유년 시절의 식민지 경험이란, 그러한 대비를 외면하지 않는 이상, ‘민족’의 공적인 역사와 개인 혹은 가족의

---

학동네, p. 13.

30) 최인훈(1994), 『화두』 1, 민음사, p. 30.

사적인 경험의 이질성과 충돌 속에서만 재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회고가 식민지에서 벗어난 직후도 아니며, 냉전에서 벗어난 후에야 가능했다는 것은, 그 충돌과 모순이 최인훈에게 강한 억압이었음을 방증한다.<sup>31)</sup> 「두만강」을 식민주의적 무의식에 대한 비판으로 독해한 선행 연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은 바로 그의 유년 시기가 식민지와 얽혀있다는 사실이다. 즉 소설가인 최인훈에게 식민지란 객관화된 대상이 아니었으며, 그 자신의 사적 경험과 ‘민족’의 공적 기억 사이의 충돌, 그리고 그로 인한 억압과의 관계 속에서 재현될 수 있는 대상이었다. 그 결과 「두만강」의 서사 또한 식민지에 관한 시차(時差/視差)를 가진 두 가지 서술자의 목소리의 충돌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 3. 공존과 갈등 —

#### 식민지 재현의 곤란과 「두만강」 서술자의 두 가지 목소리

최인훈 스스로 지정한 「두만강」의 중심인물은 현경선과 한동철이다. 한동철은 ‘소학교’ 3학년 학생이며, 현경선은 지방 유지로 두만강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현도영의 딸이다. 소설의 서술자는 ㉠ 학교와 그의 가정을 중심으로 한 한동철의 일상 생활 및 주변 사람들과의 감정 교류 등을 하나의 축으로 삼고, ㉡ 다른 한 편 한동철의 형이자 ‘경성’에서 전문 학교를 다니는 한성철과 현경선의 지지부진한 ‘연애’ 과정을 또 다른 축

31) 최인훈의 인생 초반 30년은 식민지, 공산정권, 권위주의 독재체제에서 해방, 열전, 월남, 혁명을 경험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경험을 두고, 최인훈은 ‘구보씨’라는 자전적 자아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인생 초반 ‘서른 해’란 「천황-스탈린-이승만」 세 사람의 이름이 하늘처럼 솟았다가 연이어 떨어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시기였고, 그 결과 자신은 “세상에는 믿는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언급하였다. 최인훈(1971), 「갈대의 사계」 4, 『월간중앙』, 1971.11, p. 442.

으로 삼아 소설을 서술한다. 그리고 ㉔ 두 사람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지역 유지로 공장을 경영하는 현도영과 아내 김 씨, 그리고 일본 의과대학의 졸업한 의사 한 씨와 그의 아내 송 씨를 비롯하여 조선인들의 내력과 특징을 서술한다. 그리고 이들 조선인들의 주변에, ㉕ 회령에 거주하였던 일본인들의 존재를 배치하는데, 이들은 학교, 회사, 군대, 경찰 등의 장치(dispositif)를 공유하며 조선인들과 접촉한다. 그리고 서술자는 ㉖~㉙의 각 인물에 초점화하여 인물 사이의 충돌과 소통을 서술하는 동시에, ㉚ H읍의 역사와 식민화 과정 등에 대한 정보 제시와 서술적 논평을 덧붙인다.

그런데 ㉖~㉙, 즉 인물에 초점화한 사건의 서술을 서술하거나 그와 관련된 풍속을 재현하는 서술자의 목소리와 ㉚ H읍의 역사와 식민화 과정에 대한 서술자의 정보 제시와 서술적 논평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1-1] 그것은 일본이 전쟁을 시작하여 영국의 요새 「싱가폴」을 함락시킨 것을 축하 하느라고 열린 「쫄쫄 행렬」(초롱불 행진)의 밤이었다. 온 읍은 흥성흥성 잔칫날 기분에 온통 파묻혀 있었다. [...] 조선사람들은 일본사람들이 서두는 통에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감염 되서 통털어 거리로 나왔다. (406)<sup>32)</sup>

[1-2] 복잡한 정세를 그려안은채 일천 구백 사십 삼년은 가고 새해가 되었다. 새해 첫날은 맑고 싱싱한 날씨다. [...] 사람들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 여기에 모인 사람들 역시 그러했다. 일본이 이길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지만 되도록 빨리 때려눕혔으면 했다. / 첫째 물건이 귀해 고통이다. / 흔하던 일용잡화를 비롯해 전쟁 초기까지도 활발히 나돌던 물자까지도 인제 와서는 몹시 귀해지고 배급 물자가 돼 버렸다. (445-446)

32) 최인훈(1970), 「두만강」, 『월간중앙』, p. 406. 이하 「두만강」의 본문 인용은 괄호 안에 번수만 표시한다.



[1-3] 이처럼 정초는 유쾌했다. / 이 지방은 일본인들 영향을 받아서 양력 정초를 성대히 지낸다. / 그리고 따라오는 구정도 역시 못지않게 축하한다. 결국 비중이 똑같은 정초를 두 번 맞이하는 것이다. /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대로 기뻐하고 조선사람은 조선 사람대로 흥겨워 한다. 아래 위 깎듯이 일본 예복을 차리고 새해 인사하러 다니는 일본 사람과 아래위 희게 차린 조선 사람들의 모습은 가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같지 않은 풍경이다. (451-452)

[2-1] 그뿐만 아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이 강을 넘어 썩고 잠들은 백성에게 민족의 정기를 불어 넣으려 온다. / 이 강은 H의 상징이요, 어머니다. / 어머니 두만강. / 이 고장 사람이라는 지방 의식은 두만강을 같이 가졌다는 것으로 뚜렷해 진다. / 이 강은 현씨에게도 경선에게도 한의사에게도 그리고 애국자들에게도 생활에서 뿔려야 뿔수 없는 존재다. (420)

[2-2] 두만강을 건너 진리의 씨를 뿌리려 들어오려는 자와 불의의 영화를 끝끝내 지키려고 그것을 막는 자와의 사이에 피비린내나는 싸움이 계속되어왔다. 질투에 마음이 뒤집힌 두 사나이 가운데 긴 연약한 계집처럼 두만강은 눈물의 역사를 더듬어 왔다. / 삼십 여년 전 이 나라 국권이 완전히 일본의 손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한 번 조국의 영광을 돌이킬 날을 기약하고 꿇어넘치는 적개심과 고고한 애국심을 가슴에 품고 이 강을 흐느껴 떠는 사나이의 애절한 슬픔으로 건너던 한말의 의병들의 눈물과 이어 서른 몇 해를 줄곧 애처리운 지사의 눈물이 방울방울 맺힌 두만강의 흐름이었다. (434)

[1] 계열의 인용은 전시체제하 H읍의 일상과 풍속을 묘사하는 서술자의 서술이다. 이 계열의 서술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H읍의 형상이 두드러진다. 조선인의 행동과 생활은 일본인의 그것과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그와 영향 및 일상적인 갈등을 주고

받으면서 움직인다. 이에 반해서 [2] 계열의 인용은 조선과 일본 두 민족 사이의 ‘충돌’, 혹은 ‘점령’과 ‘저항’을 전제로 승인한 서술자의 서술이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1] 계열의 서술은 「두만강」에 등장하는 조선인과 일본인 여러 인물들의 구체적인 행동 및 정서,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반면,<sup>33)</sup> [2] 계열의 서술은 등장 인물의 행동과 정서와 무관하게 제시되는 서술자의 진술이라는 점이다. 서술자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에 관해서 두 가지 방식의 서술을 동시에 취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인물과 관련하여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H읍이라는 하나의 지역에서 공존하고 있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인물과 무관한 서술에서는 둘 사이의 갈등 관계를 부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1]에서는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이라는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2]에서는 ‘조국’, ‘애국’, ‘지사’, ‘눈물’ 등 민족주의적 감성에 기반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1] 계열의 서술은 H읍 인물들의 경험에 밀착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의 갈등을 포함한 공존에 주목하고 있는 것에 반해, [2] 계열의 서술은 민족을 단위로 하여, ‘독립’, ‘애국’, ‘진리’를 위해 싸우는 자와 그것을 막는 ‘불의’한 자의 대립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서술자가 서로 다른 지향과 의미소를 거느린 [1] 계열과 [2] 계열의 관계를 해명하거나, 그 둘의 충돌을 외면한 채, 이 둘을 하나의 서술자의 목소리로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sup>34)</sup>

나아가 [1]의 주요 초점 인물 중 한 명인 한동철은 1943년 ‘소학교’ 3

33) [1-1]은 동철과 마리꼬가 처음 만나는 사건, [1-2]는 1944년 정월[正月]을 맞아 한 의사의 집에 모인 조선인들의 신년 모임과 연관된 서술이다. [1-3]은 정월을 맞은 H읍의 조선인 및 일본인의 풍속에 대한 서술이다. 동철과 마리꼬의 놀이 바로 다음에 제시된다.

34) 류동규 역시 “『두만강』 작품 전체를 통해 이런 유년 화자의 시선이 일관되게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유년의 세계를 벗어난 시선이 작품 곳곳에 개입되어 있다.”라고 평하였다. 류동규(2016), p. 268.

학년생으로 그의 나이는 작가 최인훈의 실제 나이와 거의 비슷하다.<sup>35)</sup> 이 점에서 [1] 계열의 서술은 회령에서 보낸 최인훈 자신의 유년 시절 식민지 경험과 밀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2] 계열의 서술은 해방 이후의 탈식민 국가에서 식민지의 역사를 평가하는 방식, 특히 민족의 억압과 저항의 시각에서 식민지를 해명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2] 계열이 민족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서술에 그 흔적이 나타난다. [2-1]에서 서술자는 두만강을 건너는 독립운동가의 형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학사적으로 볼 때, 이는 조명희의 「낙동강」에서 해방을 몽상했던 혁명가들을 강을 건너는 이들로 형상화한 것을 계승한 것이다.<sup>36)</sup> 탈냉전기의 『화두』를 통해 널리 알려졌듯, 최인훈이 「낙동강」을 읽고 그 독후감으로 큰 칭찬을 받고 작가를 꿈꾸게 된 것은 해방 이후 북한의 학교에서였다.<sup>37)</sup> 즉 [2] 계열의 서술에는 해방 이후의 경험과 인식이 개입해 있는데, 이를 [2-2]의 ‘삼십여년 전’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1943-1944년 당대의 인식인 것처럼 서술에 삽입해 두었다.

앞서 보았듯, 식민지를 유년시기에 보낸 1930년대 중반 ‘황국신민세대’의 지식인 주체들은 해방 이전 유년기의 경험적인 식민지 기억과 해방 이후 공적인 식민지 역사 기록 사이의 간극을 경험하고 있다. 「두만

35) 소설가 최인훈과 비평가 김윤식 등 ‘황국신민세대’의 유년기 식민지 경험을 「두만강」의 동철 또한 공유한다. 동철이 다녔던 ‘소학교’ 벽면에는 “「皇國國民의 誓詞」”(455)가 걸려 있었고,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할 때 그는 “시오노 하마베노……”(463)로 시작하는 일본 노래를 불렀다.

36) 「두만강」의 다음과 같은 서술을 들 수 있다. “어느 때 이른 봄에 이 땅을 하직하고 멀리 서북간도로 물러가는 한때의 무리가, 마지막 이강을 건널 제, 그네들 틈에 같이 끼어 가는 한청년이 있어, 배스전을 두다리며 구슬프게 이 노래를 불려서, 가득이 이 슬퍼하는 이사스군들로 하여금 눈물을 자아 내게 하였다한다.” 조명희 (1946), 「낙동강」, 『낙동강』, 건설출판사, p. 8. 이때 낙동강을 건너 간도와 중국 곳곳, 그리고 서울을 경유한 박성운이 다시 낙동강을 건너 돌아온 것으로 「낙동강」의 사건은 시작된다.

37) 최인훈의 「낙동강」 독서가 가진 의미는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었다. 최근의 논의로는 손유경(2017), 「혁명과 문장」, 『민족문학사연구』 63, 민족문학사학회 참조.

강]에서도 그 배경이 되는 1943-1944년은 전시체제기로 물자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도 군수를 위한 자원 수집에 일상적으로 동원되었고,<sup>38)</sup> 그들은 일상적으로 군가를 부르며 남성화된 일본어를 제화해야 하는 시기였지만,<sup>39)</sup> 서술자는 동철이 이것을 억압과 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형상화한다.

개인의 기억과 공적인 민족의 기록이 충돌할 경우 후자가 전자를 억압하며 죄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두만강」의 서술자는 두 가지 인식의 갈등을 전면화하기보다는 병치하고 봉합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두만강」의 본문에 앞서 제시되는 「프롤로그」는 봉합을 위한 서술적 장치이다. 「프롤로그」는 [2] 계열의 서술을 전면화한 역사 인식을 보여준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는 것은 슬프고 무섭고 — 멍하도록 신비한 일이다. 1943년의 H읍, 북쪽의 대강 두만강변에 있는 소도시다.”로 시작하는 「프

38) “국민 학교 아동들이 선두를 서서 다니며 통조림 통, 빈병, 깨진 알미늄 그릇, 부러진 수저, 밑 바닥 뚫린 냄비, 잉크병, 녹슨 자물쇠, 역시 녹이 쓸어 다 삭은 양철조각, 고무신, 지까다비, 헌겉 누더기, 바퀴가 달아난 세 발 자전거, 닳아 빠진 자전거 타이어, 소화생이 쓰다 버린 세모자, 연필 깎는 칼, 안경테, 찢어진 고무공, 장난감 지휘도, 선이 떨어진 전구, 리어카아의 뼈, 손 잡이가 떨어진 국자, 헌 잡자—이런 폐물들이 영예 높은 대일본 제국의 권위를 유지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452) 서술자가 제시하는 녀마의 목록은 무척 자세한데, 이는 작가 최인훈의 구체적인 경험이 투영된 서술이라 판단된다.

39) 소학교 생도들은 학교에서, 혹은 행진하며, 국가 <君が代(기미가요)>, 군가 <海ゆかば(바다에 가면)>, <雪の進軍(눈 속의 진군)>,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에 가사를 붙인 창가 <螢の光(반딧불의 빛)> 등을 제창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함락 기념 초롱불행렬(提灯行列) 부분에서 서술자는 일본어 가사를 직접 인용하였다. 「두만강」에 한글로 표기된 일본어 가사와 서술자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갓다조 닙뽕 단지데 갓다조(이겼다 이겼다 일본 단연 이겼다) / 베이에 이마꼬 소 게끼메쓰다(미국 영국 이제는 그만) / 다이헤이요 노 데끼징에이와(태평양 적진영은) / ………”(406) 일본어로 옮겨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勝ったぞ日本断じて勝ったぞ / 米英今こそ撤滅だ / 太平洋の敵陣営は ………” ‘ぞ’는 스스로의 강한 다짐을 드러내거나, 대회 등에서 이겼을 때 함께 외치는 느낌의 남성적 어미이다. 「두만강」에 등장하는 일본어의 여러 특징에 관해서는 스게노 이쿠미(菅野生実) 선생님(서울대)의 가르침을 받았다.

롤로그」는 다음과 같이 맺어진다.

침략자와 피침략자 사이에 가장 悲劇的인 시기는 언제일까? 暗殺의 방아쇠가 당겨지고 가죽조끼가 울고, 기름불이 튀고 주재소(駐在所=支署)가 타오르는 시기일까? 悲劇의 큰 윤곽이 遠景으로 물러가고 피침략자가 침략자의 言語로 朝夕인삿말을 하게 되는 때다. 日常 속에 주저앉은 悲劇. 비극의 構圖속에서의 喜劇, 아니 그 속에 있는 당자들은 喜劇이라고도 느끼지 않는다. 審判의 바로 전날까지 아물 거리는 아지랑이 — 季節의 陽氣. [...] 1943년의 H트는 이런 아지랑이 속에 있다.<sup>40)</sup>

식민지의 설움을 대변하는 이상화의 유명한 시구로 시작하여, 끝까지 비타협의 태도를 견지했던 한용운의 시어를 경유한 「프롤로그」는 ‘침략자’의 언어가 ‘피침략자’의 일상에 내려앉은 시기를 비극이라고 규정하며, 전시체제하의 회령을 바로 그러한 비극 아래 있었음을 언급한다. 「프롤로그」의 존재는 이어지는 「두만강」의 본문을 아지랑이의 ‘비극’으로 읽도록 이끈다. 이 「프롤로그」에는 “고꼬와 조요센 호꾸단노 (여기는 조선 북단하고도)”라는 <朝鮮北境警備の歌>의 첫 소절도 인용되어 있으나 이는 소략하며, 그에 대비되어 <눈물젖은 두만강>(1938)의 1절 가사 전체가 인용되어 있다. 보통 이 노래의 ‘님’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사라진 독립투사를 상징하는 말”로 이해되는 데, 사실 이 노래는 발표 직후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1964년 반공극 5분 드라마 <김삿갓 북한 방랑기>(KBS)의 주제가로 사용되고서야 널리 알려졌다.<sup>41)</sup> 「프롤로그」 또한 해방 이후 널리 유통된 식민지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재현물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 최인훈(1970), 「프롤로그」, 『월간중앙』, 1970.7, p. 395.

41) 「눈물 젖은 두만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13264> (검색: 2017.9.30.).

「두만강」의 본문에는 [1] 계열과 [2] 계열의 시선이 모두 존재하지만, 「프롤로그」가 [2] 계열의 목소리를 전면화하는 양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당대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1970년 당시 [1]과 [2]의 목소리가 함께 제시된 소설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추정할 수 있다. 최근까지도 「두만강」에 대한 대부분의 비평적 언급과 학술적 연구들은 「프롤로그」의 「일상에 내려 앉은 비극」이라는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이 소설을 독해하였다. 침략과 피침략, 민족 간 대립의 구도가 뚜렷한 [2] 계열의 「프롤로그」를 본문 앞에 제시하는 것은 비판으로부터 일종의 안전망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인훈 개인의 곤란이라는 층위에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앞서 보았듯 최인훈은 이 소설을 자신의 주체 구성 문제와 연관하고 있었다. 그 문제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1]과 [2]의 병치 이상의 서술을 할 수 없었던 최인훈으로서 [2]를 전면화한 「프롤로그」를 통해 그 두 계열의 통합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두만강」의 본문이 [2]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1]의 계기 또한 품고 있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것은 단지 기존의 연구가 [2]에만 주목했기 때문은 아니다. [2]의 시각에서 보면, [1]의 계기는 ‘비극’이나 어리석음, 혹은 비윤리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최인훈 개인에게 [1]은 공적인 기억과의 충돌 속에서, 그 자신의 유년 시절을 자기 분석하고 서술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또한 [2]가 전제하는 침략과 피침략, 혹은 한 민족에 의한 다른 민족의 억압으로만 환원되지 않는, H읍의 생활이라는 경험과 기억이 가진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두만강」의 서술자가 두 가지 인식과 목소리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확인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1970년을 전후하여 최인훈이 곤란을 감수하면서 제시한 [1]의 서술의 구체적 양상은 어떠하며, 그러한 서술이 식민지에 대한 이해에 어떠한 변모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4. ‘이주’로서의 식민 —

## ‘동물적 친근감’의 경험과 (피)식민자 2세의 형상

「두만강」의 서술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살아왔던 H읍의 형상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식민지 시기 역사 서술은 억압자 일본인과 피해자 조선인의 구도를 취하거나, 혹은 향토사(郷土史)에서 일본인의 흔적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sup>42)</sup> 「두만강」의 서술자가 취하고 있는 서술 태도는 상당히 독특하다. 특히 ‘소학교’ 3학년 학생 한동철의 서사와 그의 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한 서사를 통해 서술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공유하는 지역으로서 H읍을 제시한다.<sup>43)</sup> 하지만 그러한 서술이 조선인과 일본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서술자 또한 H읍이 식민지화 이후 성장한 이유가 제국 일본의 확장 때문이었으며, H읍의 일상이 식민지배 아래서 영위되고 있다는 사실

42) 이타가키 류타, 홍종욱 외역(2015), 『한국 근대의 역사민족지 — 경북 상주의 식민지 경험』, 해안, p. 127.

43) 이 글에서는 식민자 일본인과 피식민자 조선인이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며 갈등하면서도 공존하는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H읍을 ‘지역’이라는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식민지 조선을 ‘민족’이 대립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홍종욱 선생님(서울대)의 가르침으로부터 착안하였다. 감사의 인사를 기록해둔다. 또한 ‘지역으로서의 조선’이라는 시각을 제안한 김제정의 연구에 따르면, 식민지는 민족적 차별의 공간인 동시에 지역적 억압의 공간이었으며, 식민 본국에서 발생한 여러 모순과 문제를 배출하고 완화하는 기능을 떠안게 된다. 이때 피식민자 조선인 뿐 아니라, 식민자 재조 일본인 또한 ‘지역’에 대한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1930년대 초반 조선미 이입제한 문제를 둘러싸고, 식민 본국 일본의 정책과 식민지 조선의 요구가 충돌할 때, 그 대립의 지점은 ‘민족’이 아니라 ‘지역으로서의 조선’이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1920년대 후반 총독부 관리가 토착화하여 정책 결정의 주요 직책에 오르고, 각 집단이 이익공동체로서 지역을 인식하며, 외부로부터 자극이 주어지는 등 여러 조건이 갖추어진 결과, 1930년대 전반 ‘지역 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김제정(2009), 「193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 경제관료의 ‘지역으로서의 조선’ 인식」, 『역사문제연구』 22, 역사문제연구소, pp. 74-75, 88, 105.

을 포착하고 있다.

H읍은 “만주 개척”(410)의 물자와 인원이 거처 갈 수밖에 없는 통로였고, 산업이 발달한 것은 그 결과로서였다. 조선 지역사회의 ‘식민지화’의 과정은 지방지배체제의 전환 및 일본인 식민자의 이민이라는 두 가지 계기로 살필 수 있는데, 이 중 전자는 다시금 식민 권력의 폭력장치인 군대 및 경찰의 진주와 관료제의 형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44)</sup> H읍에는 식민권력의 폭력장치로서, 식민지 시기 한반도에 상설 주둔했던 일본군인 ‘조선군’ 2개의 사단 중 하나인 제19사단의 1개 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sup>45)</sup> ‘전황’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발화한 조선인 인부 성철이 곧장 헌병대에 끌려가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일본군은 언제든 조선인의 일상을 정지하고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존재였다. 동시에 H읍은 식민지 행정 체제로 재편되었고, 식민권력의 정책에 따라 H읍에는 ‘도립 병원’과 ‘학교’, ‘은행’ 등이 설립된다. 일본인들과 그 가족들은 군, 관, 상업 등에 종사하며 지역에서 일본인 사회를 형성하였다.<sup>46)</sup>

헌병대에 끌려간 성철을 구하기 위해 교섭하러 간 경선의 아버지 현도영에 초점화하여 서술자가 포착한 바와 같이, H읍 역시 공간적으로 군대 지역, 일본인 지역, 조선인 지역으로 그 거주공간이 분할되어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 교육시설, 편의시설 등은 일본인 거주 지역에 존재하며, 일본인과 조선인은 별도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두만강」의 식민지 공간과 일본인 재현은, 식민지 공간과 일본인을 재현하는 통상의 서사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식민지 조선의 문명은 식민지(도시)의

44) 이타가키 류타, 홍종욱 외역(2015), pp. 126-127.

45) 서술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남사단중의 1개 연대가 있고 비행대가 있고 고사포대가 있는 것만 해도 말이 읍이지 특수지역”이었다. “제재공장, 팔프공장, 목축, 도자기 따위는 조선안에서도 유명하고 근처에 큰 유역탄광이 있다. 군사나 산업으로 보면 능히 부(府)에 해당한다.”(442)

46)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들은 주로 상업, 교통업, 공무, 자유업, 공업에 종사하였다. 이타가키 류타, 홍종욱 외역(2015), p. 145.



공간 분할을 염두에 두면서, 그 배경이 되는 공간을 일종의 동족 공간으로 묘사하거나, 조선어만을 사용하는 공간으로 재현하였다. 그 결과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이 발표한 소설에서 일본인은 전형(stereotype)으로만 소설에 등장할 뿐, 성격(character)으로서는 등장하지 못하였다.<sup>47)</sup> 그러나 「두만강」에 등장하는 일본인은 H읍에 삶의 뿌리를 내린 이들이며, 동시에 성격으로서 재현된다. 이러한 재현이 가능했던 이유로, 우선 작가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최인훈의 식민지 경험은 유년 시절이었으며 「두만강」의 주요한 초점화자 동철 역시 ‘소학교’ 3학년생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들은 유년의 시각을 가졌기에 자신의 경험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대상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한동철은 자신을 괴롭히는 조선인 학생 창호에게는 울먹이는 표정과 함께 질색을 감추지 못하였고,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유다끼 마리꼬에게는 친근감을 느끼며, 서사의 진행과 함께 그 우정과 친밀감은 깊어진다.<sup>48)</sup> 마리꼬는 동철을 “뗏짱”(405)이라고 부르며, 동철은 처음에는 마리꼬를 부를 때 “마리꼬짱”(405)이라고 부른다. 이후 서사가 진행되면서 동철 역시 마리꼬의 가족이 부르는 보다 친근한 명칭인 “마리짱”(411, 449)으로 칭한다. 유년인 동철의 정서적 판단에 의하면, 마리꼬는 자신이 아는 가장 예쁜 아이인데, 동시에 그는 마리꼬로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조선인인 “경선이 누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신통”해 한다(410).

하지만 「두만강」의 일본인이 성격으로서 재현되는 것을 단지 작가의 유년시절 경험과 유년 초점화자의 설정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두만강」

47) 윤대석(2012), pp. 71-72; 이혜령(2012), 「식민자는 말해질 수 있는가 — 염상섭 소설 속 식민자의 환유들」, 『대동문화연구』 7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pp. 319-324. 이러한 특징은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한 해방 이후 한국 소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48) 동철은 창호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마리꼬한테나 놀러갈걸 무엇하러 나왔나 싶었다.”(422)라고 후회하였으며, 서술자 역시 “동철은 거의 매일 마리꼬에게로 놀러 갔다. 동철은 마리꼬와 노는 것이 가장 좋다. 집에서는 아무 재미도 없고 학교에서는 창호 등쌀 때문에 재미를 붙이지 못한다.”(411)라고 서술하였다.

의 서술자는 일본인들의 조선 체류 경험이 이미 30여 년에 달하게 되면서 그들 역시 H읍이라는 지역에 뿌리 내린 존재들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술자는 식민권력의 존재와 생활에 가해지는 억압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인들을 단지 악역, 혹은 침략자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그 사정과 내력, 그리고 내면을 가진 인물로 제시한다. 동철이 마음을 주고 있는 유다끼 마리꼬의 아버지는 식산은행의 H읍 지점장이었는데, 그의 성공 경력은 식민지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의 전형적인 입신출세담이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젊은 부부는 새 운명을 개척하러 이 땅으로 건너왔다. / 조금만 총명한 일인이면 그보다 열배나 우수한 이 땅의 사람을 제쳐놓고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수지맞는 청부를 받을 수 있고, 헐값으로 거의 뺏는 거나 다름없이 토지를 수탈할 수 있는 법을 피 많은 선배들이 이미 마련한 후였으므로 유능한 청년이었던 유다끼는 무난히 오늘의 사회적 지위를 얻었다. / 인제 이 H의 왕 아니냐. 정들면 내 고향. 유다끼부인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살리라 하였고 유다끼도 그러했다. (436)

일본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던 유다끼 부부는 ‘새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조선으로 넘어왔고, 결국 “H읍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410)이 된다. H읍에 뿌리를 내리고 중견인물이 된 유다끼 부부는 앞으로도 “영원히” 조선, 즉 H읍에서 살고자 마음을 먹고 있었다. 서술자는 식민지에서 일본인이 가지는 이니셔티브를 현실로서 인정하고,<sup>49)</sup> 그들에 대한 이

49)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튀니지 출신의 작가 알베르 뎀미는 식민자를 식민지의 ‘특권자’로 규정하였다. 식민자가 많은 수입과 특권을 창출하고 사회적 지위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기회로부터 배제된 피식민자의 삶에 근거했기 때문이었다. 식민자가 식민지에서 획득하고자 한 것은 피식민자와의 “관계”에 다름 아니었다. 나아가 ‘식민자의 근면’과 ‘피식민자의 나태함’의 이항대립은 식민자의 특권을 합리화하고 피식민자의 빈궁을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서사였

질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H읍이 일본인들에게도 생활의 영역이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군인 출신으로 아오모리에서 교장 노릇을 하다가 조선으로 건너온 학교 교장 역시 “이 H의 자연이 고향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하여 인젠 이곳을 고향으로 삼아 여기에 뼈를 묻을 생각”(468-469)을 가진 인물로 제시된다.

이 점에서 최인훈이 「두만강」에서 재현한 H읍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은 식민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이다. 제국 일본의 식민지정책학자 야나이하라 다다오는 식민지를 주권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문제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면서 식민(植民)을 “사회군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sup>50)</sup> 「두만강」의 서술자 역시 식민지를 식민자의 이민과 피식민자의 반응 사이의 상호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식민자들이 30년의 짧지 않은 시간동안 식민지의 지역에서 생활하였다는 역사적 경험을 부정하지 않는다. 서술자는 이주자이자 식민자인 일본인을 H읍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이해하고 있다. 특히 동철에 초점화한 서술자는 또래인 일본인 2세에 대한 친근감을 감추지 않는데, 이는 H읍에서 태어난 일본인 2세의 경우, 그들의 고향이 H읍이기 때문이다.

식민지에서 자란 기미에는 고국의 산천을 상상해볼 뿐이었다. / 여  
기 H읍으로 오기전에 R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으므로 자기들 고향  
이라는 「규우슈」는 그림엽서에서 얻은 지식이 있을뿐이었다. (436)

다. アルベル メンミ, 渡辺 淳 訳(1959), 『植民地 - その心理的風土』, 三一書房, pp. 15-19, 98.

50) 矢内原忠雄(1963), 『矢内原忠雄全集』 1, 岩波書店, pp. 14-23. 인용은 p. 14. 야나이하라 다다오의 식민정책론에 대한 개괄적 비판적 이해는 요네타니 마사후미, 조은미 역(2010), 『아시아/일본』, 그린비, pp. 133-139; 문명기(2015), 「왜 『帝國主義下の朝鮮』은 없었는가? -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의 식민(정책)론과 대만·조선」, 『사총』 85, 고려대 역사연구소 참조.

유다끼 기미에는 동철이 좋아하는 유다끼 마리꼬의 언니이다. 식민지의 기간이 30여 년을 넘어가면서, 일본인 역시 지역으로서 H읍의 주체가 되었다. 식민자 2세의 존재는 그들의 고향이 조선이라는 점에서 ‘이주’로서 식민의 역사적 시간이 짧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형상이다. 앞서 동철은 마리꼬와 현경선으로부터 공통적인 모습을 발견했는데, 이는 단지 어린 소년의 정서적 판단의 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고향을 가지고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들에 대한 친밀감에 근거한 판단이기도 하였다. 각 개인의 처지와 내면, 그리고 그들과의 상황에 근거한 개별 주체에 대한 친밀한 관심과 재현은, 일본인에 대한 전형적인 이해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이는 역으로 조선인들 또한 전형적이지 않았으며, 각각의 성격 또한 다층적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서술자는 H읍의 조선인들 또한 다양한 설정과 배치 속에서 재현한다. 선행 연구가 비판적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견인물’ 현도영은 군부의 수요와 협조에 기반하여 제재 공장의 호황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면화한 인물이다.<sup>51)</sup> 하지만 동시에 그는 끝내 ‘조선식 생활 양식’을 고수하였으며, 새해를 맞아서는 김치, 만둣국, 밥, 대추로 만든 조선식 요리를 고집한다. 또한 인부인 성철이 헌병대에 붙잡혀 가자, 직접 헌병대를 찾아가 성철이 풀려나도록 헌병대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일본인 헌병을 억박지르며 교섭하기도 한다. 그런데 공장을 경영하며 직접 식민권력과 접촉하는 현도영과 달리, 독립병원에서 10여 년을 근무했던 의사 한 씨는 살림 방식과 가구를 모두 일본식으로 바꾸고자 한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인식의 근거에는 유학 시절 경험한 도쿄의 추억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일본 재래식 가옥과 서양 양풍 건물이 “혼혈아”처럼 서 있는 도쿄의 거리에서 활기를 느끼며,<sup>52)</sup> 학교 친구들과 아사

51)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배지연(2016), pp. 385-386 참조.

52) 서술자는 한 씨가 구마모토의전을 나왔다고 서술하기도 하는데, 그의 학창시절 회고는 모두 도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도쿄에서 중등학교를 마친 후, 구마모토

쿠사, 무사시노평야, 후지산에 놀러갔던 “선한 추억”(431)을 빛나게 간직한다. 그는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언론의 언설을 그대로 받아 말하면서도, 얼른 종전하여 ‘민간인’에게 좋은 약을 쓸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도영이 조선식 생활을 고수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

서술자가 재현한 H읍의 조선인 ‘중견인물’들은 식민권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조선 이름의 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sup>53)</sup> 조선인 민중의 일부는 창씨를 하고 교사직을 통해 일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거나, 헌병 군조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이들로 형상화하였다. 동철이 호의적인 요시노[吉野] 선생은 순옥이라는 이름의 조선인이었으며,<sup>54)</sup> 현도영이

의전에 진학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구마모토 의전이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설정상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53) 1939년 11월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1939년 제령 제19호)과 「조선인의 씨명(氏名)에 관한 건」(1939년 제령 제20호)을 나란히 공포하였다. 1940년 2월 11일 두 제령이 시행되면서 ‘창씨개명(創氏改名)’이 실시되었다. 창씨개명은 성(姓)과 명(名)의 조합인 조선인의 이름을, 씨(氏)와 명(名)의 조합인 일본인 식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씨(氏)를 만들고 이름(名)을 다시 정하는 것이었으며, 공식적인 신분표식으로서 씨와 명의 조합을 등록 및 호칭의 단위로 삼는 제도였다. 다만 조선인이 기한(1940.2.11~8.10) 안에 씨설정계(氏設定届)를 제출하여 일본인 식의 씨를 만드는 ‘설정창씨(設定創氏)’도 있었지만, 기한 안에 씨설정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호주의 성을 그대로 씨로 삼는 ‘법정창씨(法定創氏)’도 있었다. 현도영과 한 씨는 모두 씨를 새로 만들지 않고 조선 이름의 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창씨개명을 한 상태였다. 또한 창씨개명을 하면 한 명의 호주 아래 같은 호적에 오른 남녀는 모두 같은 씨를 사용하게 되는데, 「두만강」에서 현도영의 아내는 ‘김 씨’로 한 씨의 아내는 ‘송 씨’라고 불린다. 이는 ‘법정창씨’ 후에도 당대 일상에서는 조선 이름의 ‘성’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富田節子・金英達・梁泰昊(1992), pp. 41-65 참조.

54) “성철은 경선이 앞에서는 요시노 선생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순옥씨라고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459) 최초 발표본에서 의미가 모호한 이 부분의 서술은 전집으로 편집되면서 요시노 선생이 순옥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도록 보충되어 서술된다. “성철은 경선이 앞에서는 요시노 선생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순옥씨라고 해야 할지 요시노 선생이라고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최인훈(1978b), 「두만강」(『월간중앙』, 1970.7.), 『최인훈 전집 7 — 하늘의 다리 / 두만강』, 문학과지성사, p. 268.

찾아간 현병은 가네야마[金山]라는 조선적인 씨로 창씨를 한 이였다.<sup>55)</sup> 서술자가 조선인 유지는 대개 창씨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시하고 조선인 민중은 창씨를 한 것으로 설정한 특별한 의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sup>56)</sup> 조선인들 역시 사회적 지위와 창씨 여부 등으로 그 안에 다양한 비균질성을 가진 것으로 형상화된다. 하나의 입장으로 환원할 수 없는 조선인들은 식민지 체제에 적응하며 살아갔다. 서술자는 H읍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H읍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 대하여 조금도 나무레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자기네들 끼리 몇집씩 무리를 짝어 조선 사람의 집과 처마를 접하고 살고 있는 일본인의 집이라든가 [...] 이 모든 것은 동물적 친근감 —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수도물을 길어다 먹고 같은 날에 같은 국기를 게양하기를 한 삼십년만 하면 대개 생기는 감정이다 — 이라든지 경제적 우월에 대한 당연한 존경, 관료적 위험에 대한 절대적 복종, 군사적 위력에 대한 은근한 신뢰, 이런 감정을 이끄는 건전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 일본 사람이 전기와 같은 모든 면에서 자기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H읍 사람들에겐 조금도 이상하거나 하물며 불쾌할 일이 아니었다. (473)

55) 창씨개명 제도를 실시하면서, 총독부는 차별적 동화를 위해 기존 일본 씨의 사용을 금지하며, 조선의 지역성이 드러나는 씨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었다. 水野直樹(2008), 『創氏改名』, 岩波書店, pp. 144-153. 결국 조선인은 가네야마처럼 조선의 지역성을 포함한 씨, 그리고 요시노처럼 일본에도 존재했던 씨 모두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56) 예컨대 동철의 학교 친구는 창호, 만길 등 조선인 이름으로 등장하며, 의사 한 씨의 집에 찾아온 의사 중에는 도요다[豊田]로 창씨한 조선인도 존재한다. 다만 현도영의 집안에서 식도 일을 하는 옥순과 동철을 업어주고 후일 현병대에 끌려간 성철 이외에 ‘소학교’ 학생이 아닌 H읍의 조선인 민중으로서 창씨를 하지 않은 이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동철을 유년화자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의 만남을 통해 재현할 수 있는 사회의 영역 자체에 제한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술자는 식민지가 폭력과 함께 도래했다는 점을 서술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H읍을 두고 평화롭다는 식의 인식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서술자는 “일본 사람들은 그 편협성을 족히 발휘해서 이 식민지의 무지한 인간들과는 될 수 있는대로 자리를 같이하지 않기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조선인들 또한 저항을 하지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동화”하려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47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화와 함께 진행된 일본인의 이주와 정착은 H읍이라는 지역의 변모를 가져왔고, 생활의 영역을 공유한 일본인들과의 접촉은 H읍 조선인들의 삶을 바꾸어갔다.<sup>57)</sup>

서술자의 관심은 피식민자와 식민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변모해가는 H읍이라는 지역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민중의 감정에 있었다. 서술자는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수돗물을 길어다 먹고 같은 날에 같은 국기를 게양하기”를 30년 간 해온, “동물적 친근감”, 즉 민중의 생활 영역에서의 실감을 부정하지 않는다. H읍의 조선인 민중은 식민지라는 역사적 조건이 가져온 피식민자와 식민자의 차이를 인지하면서도, 식민자와 지역을 공유하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H읍의 조선인들은 식민권력의 폭력성과 그것과 함께 조선에 이식된 일본식 풍습의 생경함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자의로 혹은 타의로 그러한 풍습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가령 H읍에서는 일본식으로 양력 설을 성대히 치르며, 후에 조선식으로 구정을 다시 쇠었다(451-452). 이때 「두만강」의 서술자가 주목한 것은 동철과 마리꼬에게 두 번의 설이 모두 즐거운 경험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두만강」의 서술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차이를 인지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인물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두만강」에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들이 몇몇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에구찌[江口], 도모야마[友山], 도미다[富田] 등 식민지 ‘소

57) 이타가키 류타, 홍종욱 외역(2015), p. 127.

학교'의 남성 교사들이 그들인데, 서술자는 이들이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밝히지 않는다.<sup>58)</sup> 물론 이는 남교사들이 초점화자 동철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으나, 동철에게 그들은 '에구찌'라는 이름의 '교사'였으며 그를 학교에서 만난다는 것이 중요했을 뿐,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구별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두만강」 서술자의 관심은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명명 아래의 비균질성을 포착하고 있었고, 여러 인물의 각기 다른 사정과 내력, 세대 등의 조건을 검토하면서, 각각 인물을 개별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두만강」에서 형상화한 H읍에서 식민자 일본인과 피식민자 조선인들은 공간적으로 분할되어 있으면서도, H읍이라는 지역을 공유하는 존재들이었다.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은 서로 격의 없이 어울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공간을 공유하면서 갈등과 협력을 통해 H읍이라는 지역에서의 일상을 영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수 있는 서사적 설정은 동철과 유다끼 마리꼬라는 (피)식민자 2세의 등장이다.

「두만강」의 초점인물인 동철과 소통하는 유다끼 마리꼬와 유다끼 기미에는 조선의 식민지화를 경험한 세대의 2세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다. 경선의 아버지 현도영이 3.1 운동을 냉소적으로 회상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sup>59)</sup> 동철과 경선의 부모는 조선의 '식민지화'를 경험하였던 세대였다. 또한 마리꼬의 부모는 '식민지화'의 흐름 속에서 조선으로 이주한 식민자였다. '식민지화'를 경험하였던 부모 세대와 달리, 피식민자 2

58) 「두만강」이 서술하는 1940년대 초반 당시 식민지 조선의 '소학교'에서는 조선인 학생들의 수업 또한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당대 조선인 학교에는 조선인 교원과 일본인 교원이 함께 근무하였다.山下達也(2011), 『植民地朝鮮の學校教員』,九州大学出版社, pp. 20-30. 또한 이미 창씨개명 제도가 실시된 이후였기 때문에, 창씨를 한 조선인 교원도 존재하였다.

59) “그(현도영-인용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미친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글썽 그런 짓을 아직도 하고 있어. 우리 젊었을 시절에는 그래도 일본이 이처럼 강한 힘을 가지지 못했었지. 동지들과 민중이 단결하여 일본에 항거하고 근세계 세계에 동정을 호소하면 일이 될 듯도 했다. …)”(412)



세인 동철과 식민자 2세인 마리꼬는 모두 H읍을 고향으로 가졌으며,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친밀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타자의 삶/생명에 대한 배려·관심에 의해 형성·유지”되는 친밀권(親密圈, intimate sphere)을 형성할 수 있었다.<sup>60)</sup> 친밀권은 타자를 자신의 코드에 회수하지 않는 관계, 타자성에 대해 더욱 수용적인 사람[人]-사이[間]의 관계를 발견할 계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감정의 공간인 동시에 공공권(公共圈, public sphere)으로 전화할 가능성 또한 포함한다.<sup>61)</sup> 서술자는 “천 구백 사십 사년 일월 A소학교에는 진짜 선량하고 안심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높았다.”(476)라는 서술로서 친밀권이 (피)식민자 2세의 유년기 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H읍이라는 지역을 공유하는 민중의 삶에서도 형성 가능하다는 점을 형상화하고 있다.<sup>62)</sup> 이처럼 최인훈은 자신의 유년기 식민지 경험을 참조하여 식민자 2세와 피식민자 2세의 형상을 제시하였다. 「두만강」에서 (피)식민자 2세는 H읍의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경험한 ‘동물적 친근감’을 지역에 근거한 친밀성으로 전화할 가능성을 탐색

60)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역(2009), 『민주적 공공성』, 이음, p. 106. 다만 조선인 동철과 일본인 마리꼬의 친밀성 형성은 무척 예외적인 경우로 보인다. 1908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출생한 식민자 2세 하타다 다카시(旗田颯)는 일본인과 조선인 공학이었던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조선인 생도를 따돌리는 일이 없이 함께 놀고 함께 싸우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조선인 생도와 친하게 지낸 경험은 적었고 서로를 집에 초대할 경험도 없었다. 그들은 일본에 관해서는 배웠어도 조선에 관해서는 배울 수 없었으며, 일본인 소학생과 조선인 소학생은 다른 세계에 살았다. 旗田颯(1983), 『朝鮮と日本人』, 勁草書房, pp. 288-291. 조선인 소학생과 일본인 소학생의 일반적인 관계와 달리, 동철과 마리꼬가 우정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동철의 아버지 의사 한 씨가 H읍에서 ‘중견인물’로서 사회적 지위를 가진 덕분이었다. 싱가포르 함락 기념 초롱불행렬의 밤, 일본인 여성들과 함께 있던 마리꼬의 어머니는 의사 한 씨로부터 동철을 소개 받자, “도련님 우리 마리꼬와 의 좋게 놀아주세요”(407)라고 부탁하면서 동철에게 마리꼬를 소개한다.

61)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역(2009), pp. 110-112.

62) 이 서술은 전집에 수록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944년 1월 A소학교에는 아롱든 선량하고 헤쁜 사람들의 웃음 소리가 높았다.” 최인훈(1978b), 「두만강」(『월간중앙』, 1970.7.), 『최인훈 전집 7 — 하늘의 다리 / 두만강』, 문학과지성사, p. 300.

하는 서사적 기능을 수행하였다.<sup>63)</sup>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언급할 것은 이러한 친밀권의 발견을 두고, ‘진정한’ 내선일체의 길을 성급하게 읽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서술자 또한 ‘동물적 친근감’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동철의 조선인 ‘소학교’가 개최한 학예회에 온 관객 중 일본인은 유다끼 마리코와 그의 언니 기미에가 전부라는 설정은 이러한 인식을 보여준다. 그 힘의 미약함과는 별도로, 「두만강」의 서술자는 수탈과 억압이라는 전형적인 상을 벗어나, 식민지를 ‘이주’의 결과로서 이해하고, 지역에서 생활하는 민중의 구체적인 생활 감각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마련하였다.

다만 서술자는 ‘이주’로서 식민이라는 문제를 포착하였으나, 그 문제를 어떠한 서사로 전개할 지의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전황이 악화되어 생활과 사회가 피폐화하는 1944년 이후를 「두만강」은 서사화하지 못하였다. 전쟁의 격화로 인해 두 사람의 ‘2세’는 친밀성을 형성하는 것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하였고, 소설에는 재현되지 않으나 1945년 8월 15일 이후 유다끼의 ‘인양(引揚)’으로 인해 두 사람의 친밀성의 형성은 중단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조건으로 인해, 「두만강」은 식민지의 지역을 풍요롭게 서사화하지 못한다. 하지만 서사의 중단과는 별개로 「두만강」은 식민지의 지역과 민중의 삶을 바라보는 최인훈의 관점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5장에서는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63) 1960년대 초반 쓰루미 슌스케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전쟁 폭력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하면서, 만약 아시아주의의 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할 수 있다면 다양한 종족이 함께 접촉하고 삶을 공유하며 서로를 알아갔던 경험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인도네시아 전선에 참전하였던 그는 자기와 같은 점령군과 달리, 전쟁 이전부터 인도네시아에 이민해서 살았던 일본인 이주민들이 보여준 “인도네시아 독립에의 몰두가 진짜”였다고 느꼈음을 술회하였다. 竹内好·橋川文三·鶴見俊輔·山田宗陸(1963), 「大東亜共栄圏の理念と現実」, 『思想の科学』 21, 1963.12, pp. 13-15.

## 5. ‘지역’의 발견 —

### 민중의 자기 주체화, 역사의 중층성, 환경이라는 심급

식민지를 수탈과 억압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생활과 일상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식민지에 대하여 이전과 다른 논의의 영역을 열어주게 된다. 특히 「두만강」이 서사화하는 식민지 시기 H읍의 일상과 그 곳에서 생활하는 주체의 감각은, 1970년 당대 한국에서의 일상 및 감각과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두만강」의 서사를 구성하는 과정은 소설가 자신의 유년 시절 기억을 붙잡고 1970년대 당대로서는 낯선 지역과 일상을 형상화하는 과정이었다.

1970년대 초반 김윤식은 “어떤 작품이든 현역 작가가 현시점에서 발표한 작품이면,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언제 最新의 작품일 따름이리라. 이러한 상식을 모를 리 없는 그(최인훈-인용자)가 새삼스런 文靑투의 소리(「작가의 辯」-인용자)를 공언해놓았다는 것은 필시 그다운 <음모>가 아닐 수 없으리라.”라고 평하면서,<sup>64)</sup> 1970년 「두만강」 발표의 현재성을 강조하였다. 김윤식의 언급을 존중한다면, 「두만강」의 H읍 재현은 식민지의 지역과 일상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민중’의 자기 주체화, 풍속의 역사적 중층성, 그리고 환경이라는 심급이다.

동철의 서사로부터 다소 벗어나 있지만 경선의 서사 역시 「두만강」의 주요한 서사이다. 4장에서 살펴본 동철과 부모 세대에 관한 서술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동서하는 전시체제하 H읍의 사회 재현이라는 점에서 한 자리에 두고 읽을 수 있지만, 경선의 서사는 그러한 양상만으로 해명되지 않는 계기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최인훈도, 서술자도 경선의 서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계기를 발견하고 재현하지만,

64) 김윤식(1974a) 「어떤 한국적 요나의 체험」, p. 369.

그것의 의미화에는 충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발견 자체가 가진 당대적 의미가 존재하며, 이후 최인훈의 다른 소설들을 통해 그 의미를 거듭 탐색한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두만강」에서 서술자는 경선의 태도를 특히 두 가지로 제시한다. 하나는 막연한 방법으로나마 자기를 주체화하는 모습이며, 또 하나는 H읍이라는 지역의 관습에 곤혹스러워하는 태도이다.

경선은 자기도 그런 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그 노력이란 것이 막연한 것이다. / 경선은 글씨를 못 쓰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매일 습자 연습을 한다. 그리고 책도 읽는다. 많이 알아야 하지 않겠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알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416)

경선은 자신이 한 번도 서울에 가보지 못 했다는 사실, 즉 근대적인 것, 문화적인 것에 관하여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콤플렉스를 두고, 그가 선택하는 해소의 방법은 자기 나름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었다. 서술자도 직접 평가하듯, 경선의 노력은 무척이나 막연한 것이었지만, 그는 막연한 방법으로 자기주체화를 시도한다. 이것은 경선 뿐 아니라, 「두만강」에 등장하는 H읍의 ‘민중’들로부터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였다. 그들은 습자, 소설 읽기, 그리고 근면한 생활 그 자체를 통해 자기를 주체화하였다. 경선은 서양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사상과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자 하였고(440),<sup>65)</sup> 또한 ‘민중’들은 실생활 자체를 새로운 배움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경선에 비해 여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살았던

65) 서울에서 전문학교를 다니고 있는 성철조차도 이광수의 『사랑』을 통해 안 박사과 석순옥의 사랑에 감격하며, 인격이 높은 남녀 사이의 예의와 사랑에 대해 배우기도 하였다(457).

조선인 여성 요시노(순옥)는 자신과 경선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야미 쌀 값이 점점 올라가는 것, 비누 배급이 충분치[sic] 않은 것, 담배 질이 나빠지는 것, 농촌에선 사람손이 모자라는 것”(479) 등 실생활에서 지역 경제와 물자의 흐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활감각에 주목하고, 그것을 자기 계발의 계기로 삼았다.

물론 소설책을 통해 배운 “막연한 생활감정”이 “학생 시절의 한낱 추억”에 그치거나 “실생활에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가치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440)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근세 일본의 ‘민중’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인 유교도덕을 통속화하여, 자기형성 및 자기해방의 계기로 삼았던 사실을 참조해 볼 수 있다. 야스마루 요시오에 따르면, 근면·검약·정직·효행·인종(忍從)·겸양을 비롯하여 일본 민중의 ‘통속도덕’은 자기규율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일본 근대사회의 변혁 및 일본근대화의 원동력으로 기능하였다.<sup>66)</sup> 이러한 의견을 참조한다면, 경선을 비롯한 H읍 주민들의 자기주체화 역시 자신들의 삶을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67)</sup> 물론 「두만강」에서 재현된 ‘민중’의 자기주체화는 막연한 지향의 수준에 머무는 한계가 있으며, 야스마루 역시 일본 민중의 ‘통속도덕’은 태도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66) 安丸良夫(2016), 「日本の近代化と民衆思想」(『日本史研究』 78・79, 1965), 『日本の近代化と民衆思想』, 平凡社. 야스마루 요시오의 「일본의 근대화와 민중사상」은 1960년대 전반에 등장한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 및 전후 계몽과 맑스주의 역사학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있다. 야스마루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민중의 생활 사상을 방법적으로 구분하여, 후자의 영역을 상대적으로 자립된 분석 영역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광의의 이데올로기 지배가 성립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자 하였다. 박진우(2013), 「야스마루 사상사 다시 읽기」, 『일본비평』 9, 서울대 일본연구소, pp. 203-209 참조.

67) 최근에 제출된 한 연구에서는 「두만강」의 경선을 “기존질서에서 안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변화와 관련된 참신한 삶을 기대하는” 인물로 평가하였는데, 필자는 위의 맥락에서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칸 앞살 아흐메드(2017), 「최인훈 소설의 유토피아 의식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p. 162.

객관적인 현실인식이나 사회 변혁에 도달하지는 못했기에 모순과 한계를 노정한다고 평하였다. 「두만강」 역시 ‘민중’의 자기주체화를 낙관하지는 않는데, 일본인 교장은 자신의 경험한 식민지 조선의 교육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사년동안 남선의 이 곳 저곳 그것도 작은 읍이나 농촌으로만 돌아다녔기 때문에 남선지방 풍물에는 꽤 소상하였다. / 그의 말을 빈다면 남선은 아직도 개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생도들의 가정을 방문해 보아도 그 부형들은 대개 문맹이고 일년 중 아무 취미도 없이 소 처럼 일하는 빼빼 마른 아낙네들은 보기에 안 되었더라고 말했으며 한 번은 어떤 생도가 오래 나오지 않기에 가 보았더니 어두운 방에 병든 아이가 누어있는 머리맡에 무당이 써준 부적을 모셔 두었는데 그후 보름 만에 죽어버렸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젓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정은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여름철이면 오이, 파, 가지 등속은 밀리도록 갖다 주고 가을이면 또 가을대로 감, 호박, 완두콩, 배추를 저다 주군 했지요. 어떤 학부형은 담배를 피우다 들킨 자기 아들에 대한 퇴학 처분을 풀어 달라고 애걸하러오는 길에 막걸리를 한 병 들고 왔었는데 덕택에 한 바탕 그 영감의 신세타령의 말동무가 되지 않았겠소? / 전에는 그대로 남 부럽지 않은 집안이었었는데 지금은 이 꼴이 됐다고 하면서, 그러나 고향을 버리고 되놈 땅(만주)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탄식합니다. / 그 후부터는 그분의 「도부로꾸(막거리)」의 찜하고 텃텃한 맛이 잊히지 않아서 지금도 쪼이 쪼이(찜끔 찜끔)하지요. 허허허허……」 (469)

서술자는 일본인 교장에 초점화하여 여전히 예전의 가치과 관습을 고수하며 근대적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조선 농촌의 ‘민중’의 삶에 관해 서술한다. 하지만 교장의 직접 화법을 통해 아이의 퇴학처분을 풀기 위해 막걸리를 들고 온 조선인 노인과 어울렸던 추억을 제시한다. 일본인 교장의 시각을 통해, 「두만강」의 서술자가 ‘민중’의 주체화를 평면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의 주체화는 역사적 조건과 관습의 현실적인 규정성과 길항하는 것이었으며,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시행착오를 포함한 점차적인 주체화 과정으로 나타난다.

경선의 서사는 지역에 존재하는 역사적 시간의 다층성과 사회적 질서의 형성에 관여한 환경이라는 조건의 존재 또한 환기한다. 경선은 서울에서 전문학교를 다니는 동철의 형, 성철과의 연애가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여러 점에서 불만인데, 흥미로운 점은 서술자가 연애의 부진을 두고 H읍의 지역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는 경선이 적극적으로 연애를 하지 못하는 까닭을 드러내며, [나]는 조선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교사 도모야마의 연애에 대한 생각이다.

[가] 눈깊은 북쪽의 이 자그마한 도시에서는 연애란 비공식의 어떤 것이었다. / 저건 어느 집 몇째 아들이고 이건 누집 몇째 딸이라는 것을 제손금 보듯이 다 아는 이 H같은 곳에서는 애인끼리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어느 사나이와 어느 여자가 좋아하는 사이라는 것도 오늘날에 와서는 담화의 다반사적인 고집거리가 되고 있고 또 그때도 다른 큰 도회인에겐 역시 그러했을런지 모르나 H에서는 힘써 숨겨야할 일이었다. [...] 남녀관계에 대한 관념이 수백년전의 조상들과 별 다름이 없는 이 시골 사회에서는 연애란 일종의 천시할 물건이요 더구나 양가의 자녀들에게는 더욱 그러해야 할 물건이었다. / 가문의 망신이기 때문이다. / 이 「연애」란 말이 가진 이감은 굉장히 천하다. (428)

[나] 그(도모야마-인용자)는 경선이가 인물은 요시노 선생보다 낮은 하나 요시노선생도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 그리고 그의 마음이 요시노 선생에게로 가장 크게 쏠리게 한 것은 경선과 자기는 여차피 신분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자기는 시골 농부의 아들인데 비해, 이 H읍의 당당한 유지의 딸인 경선은 무엇인가 높이 우러러 봐야할 사람이었던 것이다. (471)

H읍에도 자유 의지를 가진 근대적 개인을 생산하는 장치인 학교가 설치되었고, 학교는 “근대적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는 계몽주의의 상징인 동시에 새로운 스타일의 발원지”로서 자유 연애와 낭만적 연애를 구성할 토대로 기능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서술자는 H읍이 “학교와 집 사이에 놓여진 도로를 따라 연애를 가능하게 하는 시공간”인 도시의 “거리”<sup>68)</sup>를 가지지 못한 장소임을 지적한다. “학교-신문-기차가 형성하고 있는 교환과 소통의 네트워크 체계”가 “탈인격화된 중매쟁이”로서 기능하면서 1910년대 경성에서는 연애가 가능해졌지만,<sup>69)</sup> 1940년대 H읍의 사회적 관계의 규제성은 젊은 남녀로 하여금 ‘거리’를 걷지 못하도록 하며, 연애를 ‘비공식’적인 것으로 후경화하였다.

서술자가 판단하기에, H읍에서 연애의 차질은 ‘소문’(‘고십’)이라는 전근대적인 미디어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양가’, ‘가문’, ‘망신’, ‘신분’ 등으로 표현되듯, ‘수백 년’의 시간동안 H읍이라는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적 질서의 규정성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앞서 현도영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면화한 인물로 제시되지만, 서술자는 식민지 근대화론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H읍의 사회적 질서를 구성하는 다양한 역사성을 포착하고 있다. 서술자는 연애의 불가능에 대한 탐색을 ① “수백년전의 조상들과 별 다름이 없는 이 시골 사회”, 즉 역사의 지속성 및 다층성과 ② “눈깊은 북쪽의 이 자그마한 도시”, 곧 환경이라는 조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간다.

①을 통해 서술자는 H읍의 사회적 질서가 평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간적 층의 중첩으로 형성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곧 식민지 근대와 함께 도입된 철도, 학교, 연애 등의 미디어에 의해 구성된 시간이 있는 한편, 다른 한 편에서는 수백년째 지속되는 삶의 질서

68) 김동식(2001),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 『문학과사회』 14(1), 문학과지성사, pp. 145-147.

69) 김동식(2001), p. 143.



에 근거한 시간이 있었으며, 그 둘은 ‘절합’하였다. 이타가키 류타는 식민지 근대에 있어서 한국의 지역사회를 “근세 이래의 역학(dynamics)이 지속되면서 <근세>와 <근대>가 절합(節合)”한 사회로 이해하였는데,<sup>70)</sup> 「두만강」의 H읍의 삶 역시 그러한 절합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경선의 연애가 지지부진한 까닭은 그 연애가 절합의 지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H읍의 사회적 삶은 ‘양식으로서의 근대’를 완미하게 향수하지는 못하지만, 그들 또한 연애라는 새로운 삶의 형식을 인지하였으며 그것을 통해 자기를 주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미 ‘구조로서의 근대’를 경험하고 있었다.<sup>71)</sup> 경선 뿐 아니라, 앞서 일본인 교장이 만났던 ‘문맹’이 있었지만 ‘인정이 있는’ 조선의 ‘민중’ 또한 ‘구조로서의 근대’에 적응하고 있었다.

70) <근세>는 경제적으로는 소농 경영의 보급과 지방 시장망의 발달, 지역사회의 지배 계층이라는 점에서 재지사족(在地士族)의 정착, 문화사적으로는 서원이나 서당의 광범위한 전개 등으로 요소로 한다. <근대>는 일본인 및 식민지 행정의 침투, 지주-소작 관계를 기초로 한 종속적인 상업적 농업의 진전과 지역 산업의 발흥, ‘신식’ 학교의 도입, ‘유지(有志)’, ‘청년(靑年)’, ‘중견인물(中堅人物)’ 등 새로운 타입의 엘리트의 등장, 독립 운동이나 실력양성론적인 사회사업의 전개 등을 의미한다. 이타가키 류타는 서구 중심성과 발전단계론에 거리를 두면서, 한국 지역사회의 식민지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민지화 이전의 역사적인 동태를 중시하면서 식민지화로 인해 새로이 더해진 변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지역으로부터의 내재적인 시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근세의 사회 동태의 연장선상에 근대를 위치짓는 시각을 요청하였고, 한국 지역 사회의 식민지 경험을 “<근세>와 <근대>의 절합”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타가키 류타, 홍종욱 외역(2015), pp. 30-35.

71) 洪宗郁(2009), 『戰時期朝鮮の轉向者たち』, 有志舎, p. 21. ‘양식으로서의 근대’는 식민지 근대를 서구의 특정한 스타일이나 양식의 이입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며, 이에 비해 ‘구조로서의 근대’는 양식으로서의 근대가 침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모순이나 갈등까지를 포함하여 식민지 근대를 이해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농촌이 도시에 의해 소외되고, 식민지가 종주국을 지탱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식민지와 농촌을 ‘구조로서의 근대’의 불가결한 일부로 파악한다. 또한 식민지와 농촌을 근대의 외부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동경, 좌절, 나아가서는 무관심까지를 전제 혹은 필수조건으로 하여서, 그 위에 종주국과 도시가 군림하는 구조 자체가 바로 근대라고 이해한다.

이 점에서 지역으로서 H읍에 대한 「두만강」의 재현은 서술자의 의도를 다소 초과하여,<sup>72)</sup> H읍의 역사를 “<근대>로의 포섭이나 관여의 측면만이 아니라, 배제나 자율성 혹은 ‘비근대적’인 요소들의 광범위한 존재, 토착적·일상적인 저항의 양상까지를 동시대적인 구조”<sup>73)</sup>로 파악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때 ‘비근대적 요소’와 지역의 구조는 짧은 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 곧 조선시대로부터 형성된 것이며, 농업과 주자학의 보급에 근거한 17세기 이래 ‘동아시아 소농사회’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었다.<sup>74)</sup> 「두만강」의 서술자의 H읍에 대한 인식은, 근대적 양식의 도입만으로 평면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지역의 역사성과 복잡성, 다양한 시간적 지층의 존재를 인식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서술자는 ② H읍의 공간적 특성, 특히 환경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진다. 지역의 구체적인 환경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사회의 형태와 관습이 다양하게 구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술자와 인물들은 H읍을 표현하며 ‘눈 많은 고장’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한다. 이는 H읍 고유의 지역적인 특징을 언급한 것이며, 조선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H읍의 지역성에

72) [1]에서 드러나듯, 서술자는 수백 년전 조상들과 H읍의 사람들이 ‘별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구조로서의 근대’와 접촉하며 이미 달라지고 있었다.

73) 이타가키 류타, 홍종욱 외역(2015), p. 48.

74) 미야지마 히로시는 동아시아에서 인구의 증가와 농업 기술의 변혁을 전제로, 중국에서는 명(明) 전기, 한국과 일본에서는 17세기 무렵 소농사회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소농사회의 형성은 세계사적으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와 동시대였음을 강조하였다. 동아시아 소농사회는 정치적 지배층이 대규모 직영지를 가지지 않았고, 대신 독립 소경영 농민계층이 사회의 대부분인 사회를 의미한다. 이것은 농업 형태 및 촌락 구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구조와 지방 시장망의 발달, 국가의 지배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우리가 ‘전통’이라 칭하는 것의 대부분은 소농사회의 형성과 함께 형성되었으며, 소농사회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습과 ‘전통’은 이후 일방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이래 재생 및 강화되거나, 새롭게 도래한 새로운 문화 및 제도과 절합하였다. 미야지마 히로시(2013), 「동아시아 소농사회의 형성」,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너머북스, pp. 66-81.

주목할 계기를 마련해 준다. 「두만강」의 서술자는 환경이라는 요소가 H읍의 ‘민중’의 일상을 규정하고 각 개인이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경선에게는 “눈많은 것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 북쪽 시골에 한 재목상의 딸로 태어났다는 사실”(440)이 중심인 서울과의 문화적 시차를 가진 주변부로서 H읍을 인식하도록 한다. 다른 한 편, 동철과 아이들은 폭설로 인해 귀가하지 못한 채, 학교에서 하루밤을 보내며 경선에게 「플란다스의 개」 이야기를 듣게 된다.

「프롤로그」 또한 환경이 H읍의 주요한 조건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프롤로그」에서 서술자는 H읍을 “북쪽의 大江 豆滿江변에 있는 小都市”로 설명하는데, 조선 초 육진(六鎭)의 설치 이래 여진족이 관내에 거주하였으며, “강건너 「滿洲」 쪽과의 正·密貿易이 성”하여 상업이 발달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H읍은 조선인, 일본인, 여진족, 중국인, 백계(白系) 러시아인, 캐나다인 등 다양한 종족이 잡거하는 지역으로 설명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진술이 단지 잡거 자체에 흥미를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경이라는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의 구체적인 일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白系 「러시아」인은 양복집, 毛皮商, 화장품가게 같은걸 한다. 女眞族은 火田, 숯구이따위, 中國人은 야채재배, 그리고 어디서나 하는 호떡집, 요릿집. 日人은 軍, 官과 그 家族, 그리고 商人, 地主. 나머지가 朝鮮人이다.<sup>75)</sup>

19세기 중후반에서 식민지화 이전까지, 조선의 관북지역은 ‘만주’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소농(小農)’들의 독자적인 대외무역의 확대에 힘입어 순조롭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지역 내부에서는 소농 경영을 기저로 한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었으며,

75) 최인훈(1970), 「프롤로그」, p. 394.

상품교류의 증대와 더불어 상업 및 고리대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였다. 20세기 초 관북사회는 무척 활기에 찬 사회였고, 특히 회령은 북간도와 길림 방면의 통로였다. 식민지화 이후에도 이 지역의 조선인 경제는 식민지화 이전의 활기와 지역권내의 자급적 성격을 유지하였다. 다만 이후 식민지 제도가 구조화되면서 그 발전의 전망을 잃게 된다.<sup>76)</sup> 「두만강」의 초점화자가 유년의 조선인 소학생이었기에 학교라는 공간이 서사의 중심이 되었고,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여러 외국인들은 쫓겨난 역사적 사실로 인해, 일본인을 제외한 다른 종족은 「두만강」에 등장하지 못하며,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가 서사의 중심에 놓인다. 하지만 다양한 종족의 흔적은 「두만강」의 H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sup>77)</sup> H읍의 일상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내선일체’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H읍이라는 지역을 구성했던 다양한 종족의 주체들의 존재를 환기한다.

이처럼 H읍이라는 지역을 재현하고 그 구체적인 양상에 주목하는 것은 서울이라는 중심에 주목하여 조선을 균질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로부터 벗어나, 각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발견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최인훈은 「두만강」을 통해 다양한 역사와 행동의 양식이 중첩되고 충돌하면서 형성된 지역에서 삶의 다층성을 이해하고, ‘환경’이라는 조건에 근거하여 그 지역 고유의 삶을 형성해간 ‘민중’의 주체성을 발견하는 것에 도달하게 된다.

76) 梶村秀樹(1993), 「旧韓末北関地域経済と内外の交易」(1989), 『梶村秀樹著作集 3 — 近代朝鮮社会経済論』, 明石書店, pp. 161, 178-179, 182.

77) 「두만강」에는 캐나다 선교사들은 전쟁 후 본국으로 쫓겨나고 그들의 돌집을 일본인 판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제시된다(476). 또한 서술자의 서술에서는 러시아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누구 하나 이 고장 말마따나 아진 까뻬이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436)라는 서술이 그것이다. ‘아진 까뻬이카(один копейка)’는 ‘한푼’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실제 H읍의 언어는 보다 혼종적이었을 것이지만, 유년의 동철이 초점화자이기에 그가 익숙한 조선어와 일본어만 소설에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6. 결 — 무의식으로서의 아시아, 새로운 프롤로그를 위하여

식민지 경험은 최인훈 세대만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인훈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1920년대 세대의 경우, 그 자신이 징병과 징용의 직접적 대상이었다. 또한 이 세대는 해방공간의 정치적 혼란과 한국전쟁 당시의 참전 경험 또한 오롯이 기억하게 된다.<sup>78)</sup> 또한 그들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이들은 식민지의 경험을 자신의 책임에 대한 신원과 책임 거증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식민지를 유년에 경험한 최인훈은 이전 세대의 곤란으로부터 한 걸음 비껴있었다. 「두만강」에서 발견한 지역으로서의 식민지와 ‘동물적 친근감’이라는 문제의 발견은 역설적으로 유년시절에 식민지를 경험했다는 조건으로부터 가능했다. 그 경험은 정신적 외상과 억압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나, 이전과 다른 식민지의 재현가능성에 도달한다.<sup>79)</sup>

그렇다면 왜 「두만강」이 1970년대에 도착하였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해방 이후 한국은 냉전의 상황과 탈식민의 과제가 얽히면서, 탈식민의 과제가 지연되었고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였다.<sup>80)</sup> 유럽의 경우 냉

78) 최근 1920년대 ‘전후세대’를 두 번의 전쟁을 겪은 이들로 규정하고, 그들의 전쟁과 식민지 재현에 주목한 한수영의 논의는 많은 시사를 준다. 한수영(2015),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 이중언어·관전사·식민화된 주체의 관점에서 본 전후세대 및 전후문학의 재해석』, 소명출판.

79) 최인훈과 같은 1936년생이자 같은 ‘황국신민세대’인 김윤식 역시 유년시절의 식민지 경험을 성년이 된 후 일종의 정신적 외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조건을 직시하면서, 1940년대 ‘친일문학’의 아픔을 자기화하며, 자기 안의 ‘일본’이라는 타자로 인한 의식 분열을 투철히 인식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문학’이라는 글쓰기를 통해 한일 사이 ‘공동과제’의 인식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의 비평적 실천에 대해 구 제국의 같은 세대였던 다나카 아키라와 오무라 마스오 등은 연구와 번역을 통해 응답하였다. 이 점에서 1970년을 전후한 시기는, 한일 양국에서 ‘제국-식민지’에 연루된 문학자들이 식민지(조선문학)의 경험을 매개로 소통(불)가능성을 상보적으로 탐색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장문석(2015a), pp. 25-48 참조.

80) 이해령(2011), 「친일파인 자의 이름 — 탈식민화와 고유명의 정치」, 『민족문화연구』

전 초기부터 유럽공동체를 추진하거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권 (Großraum) 단위, 지역 단위의 세력화에 나섰지만, 동아시아의 경우는 탈식민 개별 독립국가의 형성으로 나아갔다. 이에 더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진영은 중국과 북한을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한편 정전협정으로 한국을 탈정치화하였으며, 일본을 냉전의 하위파트너로 호명하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 냉전을 구조화하였다.<sup>81)</sup> 이러한 상황은 일본·한국을 제국·식민지라는 대칭적 관계로 상상하고 재현하도록 이끌었다. 아울러 냉전의 무게는 “사과의 틀을 남북 대결의 코드 이하로 제한·단순화하고, 사유의 단위 또한 대립하는 두 정체(政體) 이상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sup>82)</sup> 하지만 현실에서 제국과 식민지의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탈식민지화라는 문제들이 냉전이라는 문제들에 의해 구조화되면서, 식민지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석과 해결 방법 자체가 냉전이 정한 사유의 임계를 넘지 못하고, 주체의 이동이 제한됨으로써 공간적 이동에 따른 문화적 상상과 몽상 또한 차단되었다.

최인훈 역시 1960년대 중반 『회색의 의자』와 「총독의 소리」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대칭적으로 상상하고, 억압과 수탈의 관계 이상을 상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자신의 유년시절을 되돌아 보았을 때, 그는 식민지에 대한 정형화된 인식의 외부를 발견하고 상상할 수 있었다. 「두만강」에서 발견한 지역으로서의 식민지와 ‘동물적 친근감’에 대한 상상은 이후 1970년대 데탕트가 동아시아에서 실감되면서, 상상의 심도가 깊어지고 범위가 확장된다. 소설로서 「두만강」은 완결되지 못했으나, 이 소설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최인훈이 발표한 『소설가 구보씨

5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 31-32; 권현익, 이한중 역(2013), 『또 하나의 냉전』, 민음사, pp. 17-18.

81) 김학재(2017), 「‘냉전’과 ‘열전’의 지역적 기원 — 유럽과 동아시아 냉전의 비교 역사사회학」, 『사회와역사』 114, 한국사회사학회, pp. 212-222.

82) 권보드래·천정환(2012),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p. 116.

의 일일』(1970~1972)과 『태풍』(1973)과 의미의 성좌를 구성할 가능성을 여럿 포함하고 있다.

「두만강」에서 포착한 ‘민중’의 삶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씨가 서울 근교로 이사한 후 발견하게 되는 민중의 삶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태풍』에서 제국 나파유[일본]의 전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했던 식민지 애로크[조선]인 장교 오토메나크가 발견한 아이세노딘[인도네시아] 민중의 삶은 새로운 ‘아시아주의’를 정초하는 근거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두만강」에서 포착한 환경과 지역의 관계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서울 주변부 ‘민중’의 삶이 가진 고유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태풍』에서 인도네시아라는 ‘환경’이라는 조건은 초점화자 오토메나크의 세계사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서 기능하게 된다.<sup>83)</sup>

최인훈은 「두만강」에서 H읍의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은 물’을 30년 동안 마셨다는 ‘동물적 친근감’을 발견하였는데, 이후 그는 『태풍』에서 나파유[일본] 이주민과 아이세노딘[인도네시아] 민중의 관계를 ‘같은 물’을 마시는 이들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게 된다.<sup>84)</sup> 그리고 「두만강」에서 피식민자 유년이 친밀성을 형성하였던 이주자 식민자 2세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태풍』에서 나파유[일본] 이주민 2세인 ‘아이세노딘의 호랑이’라는 인물을 설정한다.

「두만강」은 지역에서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계기와 민중의 주체성을 발견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서사화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후 최인훈

83) 이 문단에서 약술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서울 주변부 ‘민중’의 삶에 대한 구보씨의 관심과 친밀권의 형성에 관해서는 장문석(2017), pp. 280-296.

84) 『태풍』에 등장하는 ‘아이세노딘의 호랑이’라는 인물로 이 문제는 이어진다. 그는 나파유[일본]인이었지만, 아이세노딘[인도네시아] 식민지로 이주한 이주민의 2세였다. 그를 두고 서술자는 아이세노딘 민중에게 초점화하여 “비록 나파유 사람일 망정 아이세노딘 물을 마시고 자란 2세요, 바로 이 로파그니스 거리에 산 사람”이라고 칭한다. 최인훈(1978a), 『태풍』(『중앙일보』, 1973.1.1.-10.13.), 『최인훈 전집 5 — 태풍』, 문학과지성사, p. 301.

은 다른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역사를 가상화한 제국-식민지의 관계를 설정하여, ‘식민지’라는 문제를 보다 깊이 탐색해간다. 이 점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은 「두만강」에서 지역에 대한 인식이 ‘아시아’에 대한 발견과 겹쳐서 제시된다는 사실이다. 「두만강」의 서술자는 하나의 징후(symptom)를 남겨두고 있다.

미개한 아세아에서는 눈많은 것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 북쪽 시골에 한 재목상의 딸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경선에겐 무서운 실감을 수반한 절망을 주었다. (440)

『광장』(1960/1961)에서 이명준의 ‘만주’ 경험을 재현한 이후로 최인훈 소설의 심상지리는 한반도라는 공간으로 축소되었고 그것은 1960년대를 거쳐 지속되었다. 냉전과 식민지는 최인훈에게 이동의 곤란과 상상의 제한을 가한 셈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유년시절을 마주함으로써, 기억과 경험의 재발견을 통해 이동과 상상의 제한을 넘어갈 계기를 발견한다. 앞서 보았듯 최인훈은 H읍이 국경의 도시임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의 경계에 한정되지 않는 생활권에 기반한 지역으로 다양한 종족들이 동서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두었다. 1970년 「두만강」에서 최인훈의 시선은 다시금 ‘만주’의 문턱에 도달하게 되며, 그것은 ‘아시아’에 대한 무의식에 도달하게 된다.<sup>85)</sup>

1990년 한 좌담에서 최인훈은 1970년 발표 당시 「두만강」에서 삭제한 부분은 “소년의 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독립운동가가 나타나는 부분”이었다고 진술하였다.<sup>86)</sup> 그는 그 자신의 경험에서 이끌어낸 H읍의

85) 위의 인용에서는 “미개한 아세아”라고 표현한 것은 이후 『최인훈 전집』 단행본에서는 “뒤떨어진 아시아”로 수정된다. 최인훈(1978b), 「두만강」(『월간중앙』, 1970.7.), 『최인훈 전집 7 — 하늘의 다리 / 두만강』, 문학과지성사, p. 230.

86) 이창동(1990), 「최인훈의 최근의 생각들」(대담), 『작가세계』 4, p. 47.



지역성과 역사, 그리고 ‘민중’의 삶과 ‘독립운동가’의 등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였다. 그가 이 문제를 다시 대면한 것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경유하여 지식인과 민중의 삶에 대해 숙고한 후,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아이세노딘[인도네시아]을 배경으로 하여 주체의 ‘부활’ 가능성을 탐색한 『태풍』에 가서이다. 하지만 『태풍』의 주동인물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제국 나파유[일본] 장교로 대동아공영권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였다가, 자신이 식민지 애로크[조선]인임을 발견하며 속죄한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나파유의 아시아주의를 넘어서 아이세노딘 민중의 편에 선 진정한 아시아주의”<sup>87)</sup>의 가능성을 탐색한 인물이었다. 이때 그의 ‘아시아주의’는 아이세노딘이라는 (후)식민지 ‘사회’와 민중의 구체적인 삶에 근거한 것이었다.<sup>88)</sup> 동시에 이는 선진과 후진이라는 서구근대의 세계사와는 또 다른 세계사의 원리를 주변부로부터 탐색하는 것이었다.

87) 김종욱(2014), 「무국적자, 국민, 세계시민」, 『역사와담론』 72, 호서사학회, pp. 146-147.

88) 최인훈 보다 조금 앞서, 1960년대 초반 다케우치 요시미는 민중의 정서에 천착하여 내셔널리즘과 아시아주의의 재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는 아시아의 침략을 지지한 민중의 경험을 상기함으로써, 1960년대 초반 미국 발 근대화론이 일본 내셔널리즘과 결합하여 민중에게 널리 지지받는 상황을 직시하였다. 그는 일본의 근대를 되돌아보며 내셔널리즘과 아시아주의 속에서 제국주의로 회수되지 않는 민중의 에너지를 구제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아시아주의」(1963)는 그러한 사상적 실험을 논제로서 제시한 글이다. 홍종욱(2017), 「일본 지식인의 근대화론 비판과 민중의 발견 — 다케우치 요시미와 가지무라 히데키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25, 한국사학회, p. 109.

## 참고문헌

### 【자 료】

- 최인훈(2009), 「두만강」(『월간중앙』, 1970.7.), 『최인훈 전집 7 — 하늘의 다리 / 두만강』, 문학과지성사.
- \_\_\_\_\_(1994), 『화두』 1, 민음사.
- \_\_\_\_\_(1989),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길에 관한 명상』, 청하.
- \_\_\_\_\_(1978a), 「태풍」(『중앙일보』, 1973.1.1.-10.13.), 『최인훈 전집 5 — 태풍』, 문학과지성사.
- \_\_\_\_\_(1978b), 「두만강」(『월간중앙』, 1970.7.), 『최인훈 전집 7 — 하늘의 다리 / 두만강』, 문학과지성사.
- \_\_\_\_\_(1972), 「갈대의 사계」 8, 『월간중앙』, 1972.3.
- \_\_\_\_\_(1971), 「갈대의 사계」 4, 『월간중앙』, 1971.11.
- \_\_\_\_\_(1970), 「두만강」, 『월간중앙』, 1970.7.
- 이창동(1990), 「최인훈의 최근의 생각들」(대답), 『작가세계』 4.

### 【논 저】

- 권보드래(1997), 「최인훈의 『회색인』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11, 민족문학사학회.
- 권보드래·천정환(2012),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 권현익, 이한중 역(2013), 『또 하나의 냉전』, 민음사.
- 김동식(2001),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 『문학과사회』 14(1), 문학과지성사.
- 김윤식(2009), 「토착화의 문학과 망명화의 문학 — 이호철과 최인훈 1」, 『문학의 문학』, 2009.겨울.
- \_\_\_\_\_(1996), 「최인훈론 — 유죄 판결과 결백 증명의 내력」, 『작가와와의 대화』, 문학동네.
- \_\_\_\_\_(1980), 「<우리> 세대의 작가 최인훈 — 어떤 세대의 자화상」(해설), 『최인훈 전집 9 — 총독의 소리』, 문학과지성사.
- \_\_\_\_\_(1974a), 「어떤 한국적 요나의 체험 — 최인훈론」, 『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 김윤식(1974b), 「어느 일본인 벗에게」,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일지사.
- 김제정(2009), 「193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 경제관료의 ‘지역으로서의 조선’ 인식」, 『역사문제연구』 22, 역사문제연구소.
- 김종욱(2014), 「무국적자, 국민, 세계시민」, 『역사와담론』 72, 호서사학회.
- 김진규(2017), 「한국 전후소설에 나타난 자기소외의 극복 모색 — 행동과 주체 정립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_\_\_\_\_(2014), 「선을 못 넘은 ‘자발적 미수자’와 선을 넘은 ‘임의의 인물’ — 최인훈의 「광장」(1961)과 홋타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1951)」, 『상허학보』 40, 상허학회.
- 김학재(2017), 「‘냉전’과 ‘열전’의 지역적 기원 — 유럽과 동아시아 냉전의 비교 역사사회학」, 『사회와역사』 114, 한국사회사학회.
- 남정현·한수영(2012), 「환멸의 역사를 넘어서」, 『실천문학』, 2012.가을.
- 류동규(2016), 「유년기의 식민지 기억과 그 재현 — 하근찬과 최인훈의 경우」, 『식민지의 기억과 서사』, 박이정.
- 문명기(2015), 「왜 『帝國主義下の朝鮮』은 없었는가? — 야나이하라 타다오(矢内原忠雄)의 식민(정책)론과 대만·조선」, 『사총』 85, 고려대 역사연구소.
- 미야지마 히로시(2013), 「동아시아 소농사회의 형성」,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너머북스.
- 박진우(2013), 「야스마루 사상사 다시 읽기」, 『일본비평』 9, 서울대 일본연구소.
- 방민호(2016), 「‘데가주망’의 논리 - 최인훈 장편소설 『회색인』」, 『어문론총』 67, 한국문학언어학회.
- \_\_\_\_\_(2015), 「이호철 선생을 만나다」, 『문학의오늘』 13 (2015.봄).
- 배지연(2016),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일제강점의 기억과 풍속 재현의 글쓰기 — 『두만강』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71, 우리말글학회.
- 복도훈(2014), 「1960년대 한국 교양소설 연구 — 419 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서세림(2015), 「망명자의 정치 감각과 피난의 기억 — 최인훈 『서유기』론」, 『현대소설연구』 58, 한국현대소설학회.
- 손유경(2017), 「혁명과 문장」, 『민족문학사연구』 63, 민족문학사학회.
- \_\_\_\_\_(2011),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난 만주의 ‘항일’ 로맨티시즘」, 『만주연구』 12, 만주학회.
- 손정수(2009), 「환상으로 존재하는 삶」(해설), 『최인훈 전집 7 — 하늘의 다리

/ 두만강』, 문학과지성사.

윤대석(2012), 『식민지 문학을 읽다』, 소명출판.

이경림(2014), 「서사의 창조에 의한 자기 정위(定位)의 원칙 — 최인훈의 『회색인』론」, 『한국현대문학연구』 42, 한국현대문학회.

이평전(1996),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이혜령(2012), 「식민자는 말해질 수 있는가 — 염상섭 소설 속 식민자의 환유들」, 『대동문화연구』 7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_\_\_\_\_(2011), 「친일파인 자의 이름 — 탈식민화와 고유명의 정치」, 『민족문화연구』 5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임종국(1985), 『일제 하의 사상탄압』, 평화출판사.

장문석(2017), 「통일을 기다리는 나날들 — 7·4 남북공동성명 직전의 최인훈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통일과평화』 9(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_\_\_\_\_(2015a), 「상흔과 극복 — 1970년 김윤식의 도일과 비평」, 『민족문학사연구』 59, 민족문학사학회.

\_\_\_\_\_(2015b), 「후기식민지라는 물음 — 최인훈의 『회색의 의자』에 관한 몇 개의 주석」, 『한국학연구』 3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조명희(1946), 『낙동강』, 『낙동강』, 건설출판사.

천이두(1978), 「추억과 현실의 환상」(해설), 『최인훈 전집 7 — 하늘의 다리 / 두만강』, 문학과지성사.

칸 앞잘 아흐메드(2017), 「최인훈 소설의 유토피아 의식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한수영(2015),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 이중언어·관전사·식민화된 주체의 관점에서 본 전후세대 및 전후문학의 재해석』, 소명출판.

홍종욱(2017), 「일본 지식인의 근대화론 비판과 민중의 발견 — 다케우치 요시미와 가지무라 히데키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25, 한국사학회.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역(2009), 『민주적 공공성』, 이음.

요네타니 마사후미, 조은미 역(2010), 『아시아/일본』, 그린비.

이타가키 류타, 홍종욱 외역(2015), 『한국 근대의 역사민족지 — 경북 상주의 식민지 경험』, 해안.

- 梶村秀樹(1993), 「日韓末北関地域經濟と内外の交易」(1989), 『梶村秀樹著作集 3 — 近代朝鮮社会經濟論』, 明石書店.
- 竹内好・橋川文三・鶴見俊輔・山田宗陸(1963), 「大東亜共栄圏の理念と現実」, 『思想の科学』 21, 1963.12.
- 旗田巍(1983), 『朝鮮と日本人』, 勁草書房.
- 洪宗郁(2009), 『戰時期朝鮮の轉向者たち』, 有志舎.
- 安丸良夫(2016), 「日本の近代化と民衆思想」(『日本史研究』 78・79, 1965), 『日本の近代化と民衆思想』, 平凡社.
- 宮田節子・金英達・梁泰昊(1992), 『創氏改名』, 明石書店.
- 矢内原忠雄(1963), 『矢内原忠雄全集』 1, 岩波書店.
- 山下達也(2011), 『植民地朝鮮の学校教員』, 九州大学出版会.
- 水野直樹(2008), 『創氏改名』, 岩波書店.
- アルベル メンミ, 渡辺淳 訳(1959), 『植民地 - その心理的風土』, 三一書房.

「눈물 짓은 두만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13264> (검색: 2017.9.30.).

원고 접수일: 2017년 10월 18일  
심사 완료일: 2017년 11월 2일  
계재 확정일: 2017년 11월 2일

Abstract

---

Colonization as Immigration and  
the Discovery of a ‘Region’:

Choi In-hoon’s *Dumangang* and the Late Arrival of a Portrait of Colonial Childhood

Jang, Moon-seok\*

Choi In-hoon’s *Dumangang* (1970), a novel which represented the customs of ‘Town H’ under the Asia-Pacific War in 1943-1944, was based on his childhood experiences. However, the representation was not transparent or smooth, and it was only possible under the conflicting and oppressive relations between childhood memories and the public memories of the nation. As a result, the narrator of *Dumangang* has two disparate voices about the colonies, and sutured the two voices through the ‘Prologue’ at the beginning of the novel. The narrator of the *Dumangang* keeps a distance from the typical representation of colony, which regarded the colonial experience as one of suppression and exploitation, and tries to understand colonization as a process of immigration and represents colony as ‘a region’ which colonized Koreans and Japanese colonizers coexisted within conflicts. Furthermore, the ‘region’ represented by *Dumangang* is the basis for recognizing the subjectivity of the ‘people’, the duplicity of history that constitutes the social order, and the condition of environment. *Dumangang* captures the life of a particular area and the specific life of the ‘people’, and represents the ‘animalistic affinity’. This interest is deepened through *One Day of Novelist Gubo* (1970-1972) and *The Tempest* (1973).

---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